甘露水의 젖줄흘러 여든 한 굽이

開校 81周年 紀念詩

東方의 크신 빛이여

빼앗긴 하늘 無明의 먹장구름으로 뒤덮여 서러운 비바람 억새풀이던 땅에 大慈大悲의 빛 받들어 民族의 精氣돋고 法光의 새벽을 열어 크신 가람의 수레를 굴려 온 아, 81돌의 日月。

滾陽땅 南山 기슭 東岳의 名刹에 大慈하신 釋尊의 法輪 이어받은 장엄한 白象의 품속 甘露水의 젖을 흘러 여든 한 굽이。

짓눌린 어둠으로 뒤덮였던 잃어진 하늘 땅에 따뜻하신 觀音의 품속 같으신 微笑로 大悲의 빛 뿌리시어 朝鮮의 精神, 朝鮮의 노래를 부른 東土의 일꾼, 노랫군들 낳으시어 朝鮮의 脈博 이어온 偉大한 金剛。

그리하여 朝鮮의 열로 피어나 東方의 빛이 된 크신 法輪 굴려 온 8旬의 精華。

蓮꽃 微笑로우신 慈愛로 民族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장엄하신 大慈悲의 횃불을 밝히신 東方의 빛 偉大한 東國이여…

滾陽땅 金剛不壞의 靈山 南山기슭 하늘높이 白象의 요람으로 치솟은 般若의 塔。

南山골 곧은 선비 높고 큰 學德의 氣慨인양 彼岸에로까지 돌려친 푸른솔 바람소리。 錦繡의 山河에 북소리로 울리어 지혜 열고 슬기 닦는 百年大計의 母音이 되셨나니

萬海·夕汀·芝薰·未堂…… 그 아름다히 아름다히 아름다히 핀 蓮꽃, 蓮꽃, 蓮꽃:꽃다울고 꽃다운 精華들。 白衣의 가슴에 훈훈하고 아름진 노래를 뿌려준 民族의 詩香 풍기는 山脈 이루어 주시고 서러운 땅 無明을 깨우쳐 하늘과 땅사이 길은어물 몰아내어 새벽을 열어오신 오늘 81돌, 大慈의 門。

아직도 추운 억새풀의 땅인데 어둠속 우리들 품어 안아주시는 民族眞理의 어머니 크신 어머니 東國이여…

이 누리에 크신 품 더욱 열어주시고 無窮한 法光을 누리소서。 아, 크신 東方의 빛, 東國이여…

〈同門詩人〉

「큰 光明 큰 智慧」 鄭 明 鎬 〈本校 미술과 교수〉

東大新聞
發行人 李 智 冠
編輯人 徐 閏 吉
印刷人 李 揆 行
主 幹 金 容 喆
編輯局長 申 寬 浩
編輯長 金 勝 培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 3 街26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今週의 言

정말로, 불(佛)을 만나기는 어렵고, 그 법(法)을 설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 법(法)을 믿는다는것은 더욱 어렵다。

〈佛敎聖典〉

祝 開校 東大新聞社 81周年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1년 동국대학교 개교81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진건설주식회사 회장 황경석 대표이사 신호철

아주산업주식회사 회장 문태식

주식회사퍼시픽콘트롤즈 대표이사 홍순지

한국질바주식회사 회장 이기빈

동남갈포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병식

서울미라마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춘

고려화학주식회사 회장 정상영

(무순)

國人社法 韓國物價協會 月刊 物價資料 商品情報 發行人 會長 金 澈 運

社說

開校 81周年의 다짐

우리의 모교인 동국대학교가 5월8일로써 개교 81주년을 맞는다. 1906년의 바로 그날 우리나라의 근대적 불교교육을 위한 중앙교육기관으로서 구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발족한 明進學校가 동국대학교의 첫모습인 것이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국대학교는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佛國淨土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불교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不退의 정진』이란 세가지 교육의 지표를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한국민족의 지성과 양심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대표하고 주도하는 가장 중추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동국대학교의 지나온 발자취는 한국민족의 20세기 현대사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건의 하나가 된다해도 결코 지나친 말일수 없다. 미상불 실제로 동국대학교는 일제하의 그 혹독한 박해를 언제나 민족의 선두에서 견뎌왔고 또 해방후엔 좌우부쟁의 혼란과 국토분단의 아픔속에서 그야말로 불퇴의신념진으로 정의와 진리의 횃불을 끊임없이 밝혀 조국의 열과 그 정기를 수호하는 金剛刀士의 구실을 다해왔다. 그리고 80년대에 접어들어선 미국·독일·일본등 여러 외국의 명문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세계 무대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세계적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지난 81년의 역사가 민족 현대사의 그 핵심부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동국대학교의 앞으로의 갈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밝혀준다. 두말할 나위없이 우리들 동국인의 지향점은 지난날의 그 빛나는 전통을 유감없이 살려 앞으로 영세무궁토록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 동국인의 책무는 실로 막중한 것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一擧手 一投足이 모두 국가 민족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엄숙한 사명감을 우리는 저마다 가슴깊이 새기고 그 실천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앞에 언급한 우리 동국인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채로운 奉祝행사와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政府에서도 수감자를 특별사면 하는가 하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위문하는 불교도의 조그마한 정성도 베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례적인 행사도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참뜻이 무엇인가를 안는 일이다. 衆生들은 와도 온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도 왜 살고있는지를 모른다. 어리석은 凡夫衆生과 깨달은 佛陀와는 구별되어 지는것이며 그 삶은 갖가지 고통과 모순을 안고 있는것이다. 自身이 살고있으면서도 사는 이유를 알지못하는 것은 마치 길을 떠난사람이 目的地와 向方이 없는것과도 같다.

부처님이 오신 참뜻

불기 253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오신 뜻을 기리며 경축하고 있다. 거리에는 갖가지 유관기관및 불교단체에서는 奉祝행사와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우리업계는 90%까지의 차관을 이용하여 무려 2백82만톤이나 되는 외국의 헌 배를 매입했던 것이다.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한 업계와 해운당국의 유착이 사태를 계속 악화시켰던 것이다.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살을 받는 제도이다.

여기서 기업의 자유활동은 최대로 보장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전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최대로 존중하는 新古典派 자본주의에 있어서까지도 자본가는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만큼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벌양사건은 이러한 개인성과 사회성의 출동이나 자본의 공공성과 같은 전제는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단지 80개의 업체를 정리하면서 기업주의 해탈을 발할 수있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한국의 기업인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둘째, 한국의 기업인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84년 5월에 단행한 행정업계에 대한 첫번째 통폐합 조치가 실패하자 85년과 87년에 다시 「합리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서도 정부는 부실 기업주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단지 80년대초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非理가 없었다거나 변양의 경우에는 발표 내용 정도니까 믿어달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과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해당 관청과 관련 은행이 연결되었던 사실은 우리의 기업들이 클수록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너무나 한국적이다.

세째, 한국의 기업은 주먹구구식 경영인도 아니다. 그들은 싼 금리의 융통으로 성장하고 또한 이러한 근시안적인 계획때문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부평초이다. 이번벌양사건으로 드러난 海運業界의 몸부림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금융지원과 방만한 경영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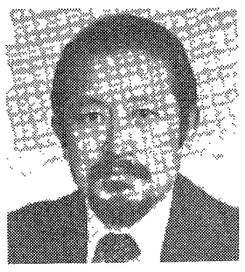
넷째, 한국의 기업은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회가 빠진 개인이나 가정제일주의는 확대된 利己主義에 불과하다.

더구나 자본주의란 모든 사람이 만들기 장단같 2백원짜리를 샀다고 야단을 쳤던 일의 후회감. 별양은 돈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대학교수에게는 별로 가슴에 와닫지 않는다. 어차피 한두에 1백만원을 쓴다는 것은 꿈속에서 조차 할수없는 일이기에.

세째로 이 액수를 내연의 처, 외국재산 구입, 호화판 생활이라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풀이하는 발법이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한 풀이도 돈많은 놀들이 다하는 짓인데… 하는 옛감정 이상이 되지 못한다.

내가 1조원이란 액수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를 것들이다.

기업인의 사회윤리관



時事論壇

黃 弼 昊

<文科大교수 · 宗敎哲學>

汎洋사건은 「氷山의 一角」에 不過

한보정치자금 한보청문회로…

고문경관이 복직되듯 「도둑놈없는 도둑놈사건」

리고 우리는 인간의 이 두가지 개인성과 사회성이 종종 마찰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쉽게 경험해 왔다. 국가에 모든 정경을 바친 사람은 착실한 납세의 의무나 권리는 없고, 우리가 자신의 이윤만 추구한 기업인을 반사회적인 인간—그리하여 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인간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한가지 사실은, 모든 개인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성을 전제로 하며 사회나 국가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논의도 개인성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사라진 전체주의나 국가지상주의가 아닌가?

물론 기업인들은 큰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업인 정화 추진대회』라는 정규행사를 하고 국민앞에 다시 선서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는 이제 호랑이가 나온다는 어린이 장난만큼도 믿지 않는다.

첫째, 한국의 모든 기업은 국민대중에 대한 「희생 메카니즘」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은 한자루만 들고 확장한 서부를 개척한 미국의 카우보이가 아니며, 일염편주를 타고 파도와 싸우면서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의 탐험가가 아니며, 필요하면 월급을 전액반납해서까지 생산현장을 고수한 일본의 노동해서 돈을 벌고 또 내가 번 돈을 자유롭게 남비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기업인의 비분에 찬 기염을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말대로 쓰는데 왜 말이 많은가?

둘째, 한국의 기업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84년 5월에 단행한 행정업계에 대한 첫번째 통폐합 조치가 실패하자 85년과 87년에 다시 「합리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서도 정부는 부실 기업주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단지 80개의 업체를 정리하면서 기업주의 해탈을 발할 수있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한국의 기업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둘째, 한국의 기업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84년 5월에 단행한 행정업계에 대한 첫번째 통폐합 조치가 실패하자 85년과 87년에 다시 「합리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서도 정부는 부실 기업주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단지 80개의 업체를 정리하면서 기업주의 해탈을 발할 수있는 사람이다.

정부·업계·운행의 三人行이 문제

한국기업의 성장은 국민희생의 메카니즘

형 기 주
<師範大교수 · 都市地理學>

동대문의 옛이름은 興仁門이고 世祖 이후에 「興仁之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都城風을 해야 되지만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기에 呪術的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興仁門이 흥인지문으로 바뀐 연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文字나 玄字는 본시 그 모양 부터가 山勢를 닮은 글자요, 산을 대신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呪術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漢陽定都 때 궁궐의 坐向을 놓고 神僧 無學은 東向을 주장했고, 法術에 능한 鄭道傳은 南向을 주장했는데 결국 鄭道傳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만약에 無學의 말을 따랐다면 서울의 中央輔弼는 지금의 한국일보사—계동입구—동대문을 연결하는 선으로 났을 것이요, 동대문의 방향이 생각보다는 빨리 개발되었을지 모른다.

지금의 세검정 골짜기는 매우 구불구불한 협곡이라 마치 지네가 기어가는 형상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여름철에는 지네가 많기로 서울시내에서는 이곳을 따를데가 없다. 지네와 삼족인 것은 닭이라 창의문의 문루에 탑을 조각하여 세검정을 굽어보도록 하였다. 어쩌면 풍수적 보허를 다했다는 속설이 있다.

이 밖에도 서울과 같이 인간의 건수가 오랜 콘센트는 각종 비화, 속설, 전설, 신화등으로 가득하다. 이들을 채집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와 연관된 장소를 美化하고, 장소에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가 소속된 땅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國土 사랑이 싹트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소는 관광지로서 외화획득에 큰 몫을 할 수 도 있다.

○漢陽秘記○

기업인의 청렴 云云은 도토리 키재기

이러한 경우에 풍수적으로는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 藏風을 해야 되지만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기에 呪術的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興仁門이 흥인지문으로 바뀐 연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文字나 玄字는 본시 그 모양 부터가 山勢를 닮은 글자요, 산을 대신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呪術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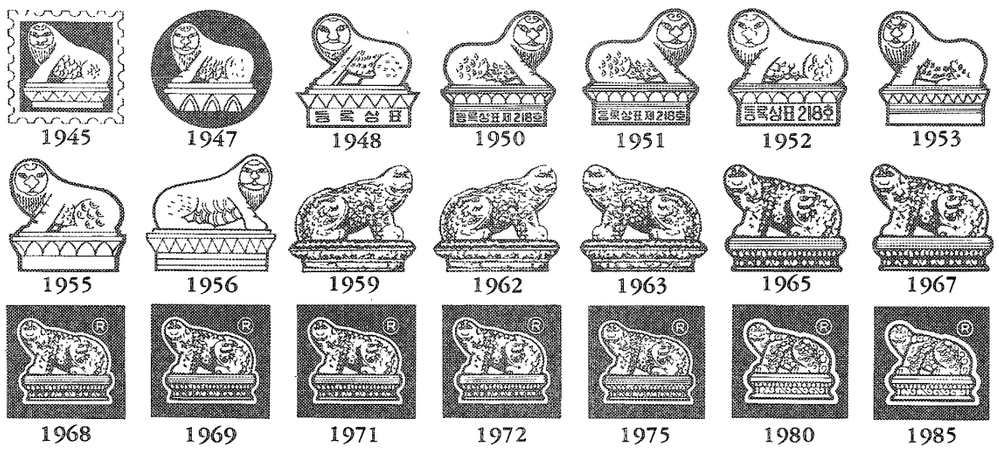
漢陽定都 때 궁궐의 坐向을 놓고 神僧 無學은 東向을 주장했고, 法術에 능한 鄭道傳은 南向을 주장했는데 결국 鄭道傳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만약에 無學의 말을 따랐다면 서울의 中央輔弼는 지금의 한국일보사—계동입구—동대문을 연결하는 선으로 났을 것이요, 동대문의 방향이 생각보다는 빨리 개발되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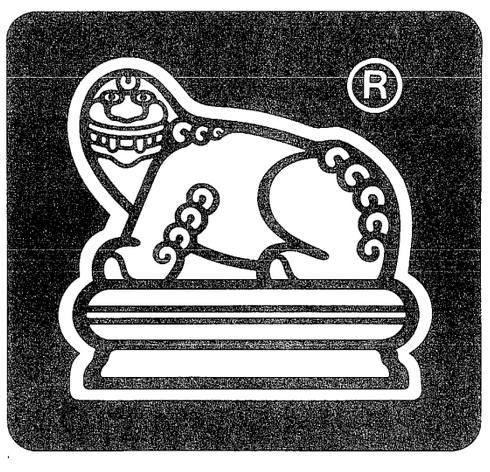
지금의 세검정 골짜기는 매우 구불구불한 협곡이라 마치 지네가 기어가는 형상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여름철에는 지네가 많기로 서울시내에서는 이곳을 따를데가 없다. 지네와 삼족인 것은 닭이라 창의문의 문루에 탑을 조각하여 세검정을 굽어보도록 하였다. 어쩌면 풍수적 보허를 다했다는 속설이 있다.

이 밖에도 서울과 같이 인간의 건수가 오랜 콘센트는 각종 비화, 속설, 전설, 신화등으로 가득하다. 이들을 채집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와 연관된 장소를 美化하고, 장소에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가 소속된 땅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國土 사랑이 싹트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소는 관광지로서 외화획득에 큰 몫을 할 수 도 있다.

민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해태

해태는 나이가 들수록 젊어집니다





마흔 세해, 이 땅 제과산업의 산 역사인 해태. 그 얼굴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 우리 모두가 겪은 아픔과 기쁨이 함께 담겨있읍니다.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기술부족으로 안타깝던 시절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60년대부터는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질 높은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식품산업의 수준향상에 앞장서 왔던 해태. 또 70년대는 이 땅에 몰려온 외제과자들에게 발 붙일 틈을 주지 않았던 자랑스런 시절이었읍니다.

이렇게 숱한 세월, 숱한 정성을 한 해태지만 그 얼굴은 날로 젊게 바뀌고 있읍니다. 이 땅에 우리 기업은 우리 손으로 키워가야 한다는 해태의 꿋꿋한 정신이 나이가 들수록 해태의 얼굴을 젊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흔 세해, 믿음과 신뢰의 깊은 뿌리를 내려 온 해태는 '보람을 심는 기업' '사랑이 있는 기업' '새로움을 찾는 기업'으로써의 소명을 다하고자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읍니다. 여러분의 해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吳仁甲이사장 告辭

친애하는 東國人 여러분!

오늘 동국대학교 개교81주년을 맞아 본인은 이 벅찬 기쁨을 모든 동국가족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기쁨은 바로 지난81년간의 온갖 풍상 속에서 동국이 이룩한 찬조적 정진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는 舊韓末에서 오늘에 이르는 81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佛敎」라는 큰 가르침안에서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사회와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해왔음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긍지는 개교당시로 거슬러 올라갈수 있겠읍니다. 잘아시다시피 舊韓末은 우리 민족이 開化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文物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 新敎育의 바람이 세차게 불던 때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救國이라는 고상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모두가 외국의 선교기관등에 의해 세워져야만 했읍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육, 그것도 고등교육이 남의 손, 남의 힘으로 시작된 것은 민족적 비극이자 모순으로 남게 되었읍니다.

이와같은 때에 당시 온갖 박해를 받아오던 불교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세웠으니 바로 본교의 전신인 명진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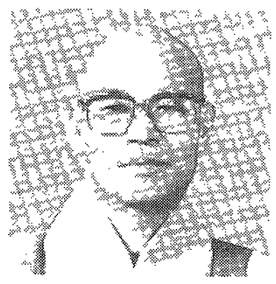
여기에서 본교야말로 이나라를 이 민족의 힘으로 지키고 발전시켜보자는 송고한 사명을 지녔던 「民族의 대학」으로 내세울수 있읍니다.

하지만 본교가 걸어온 길은 개교직후에 몰아쳐온 말구의 쓰라림과 3·1독립운동으로 인한 폐쇄, 그리고 세번에 걸친 폐교령등으로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읍니다. 여기에다 광복후에는 6·25민족상잔과 4·19, 5·16, 10·26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波高로 大學史도 함께 얼룩졌다고 하겠읍니다.

본교는 바로 이러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보살정신으로 슬기롭게 대처, 온strong>우람한 거목으로 발전하게 된것입니다.

이에 本人은 이 81년의 역사적 기반위에서 다시한번 대학은 모를지기 그 민족의 희망일을 확인하고 참된 교육적 사명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인식은 본교가 1천6백년 한국불교를 정신적지주로하고 있다는데서 자비정신의 구현에 두고자 합니다. 자비는 人本至上과 利他主義 실현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본교의 건학이념은 佛敎的 人間愛추구로 人本至上과 利他主義 실현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慈悲와 智慧로 인류平和 앞장

「民族大學」 긍지와 사명감다짐

大學은 언제나 그나라의 민족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민족과 더불어 생각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국불교가 담당해온 목표를, 다시말해 우리 민족에게 새 인생관, 그리고 새세계관을 열어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하겠읍니다.

첫째로는 오늘의 東國을 있게한 원동력인 한문학부에 정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21세기로 진입하는 경이적 과학문명속에서 새로운 이론과 학설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읍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적인 대학에로의 시작을 바로 이 학문에서 찾아야한다고 볼때 오늘 우리는 뜨거운 사명감을 안고 東國학풍의 계승발전에 실패를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네째로는 이처럼 民族史的으로 우리에게 부하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佛敎의 和合정신아래 공동체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이건간에 不信과 不和위에서는 원만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읍니다. 이에 모든 동국인은 우리의 연륜과 뿌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더욱 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보다 높은 신뢰를 회복해야만 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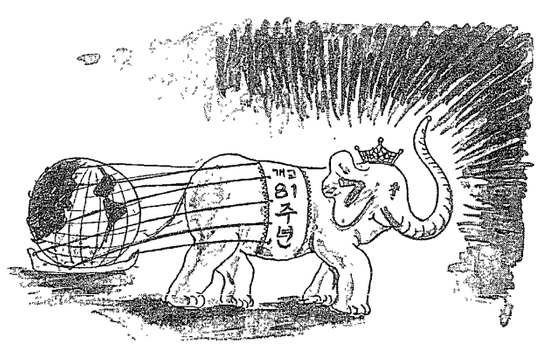
친애하는 東國人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오늘의 東國大學校가 존립하는 가장 큰 사명이 자비의 구현과 민족에의 희망과 학문에의 정진에 있음을 다시한번 다짐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장기근속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987년 5월8일

開校81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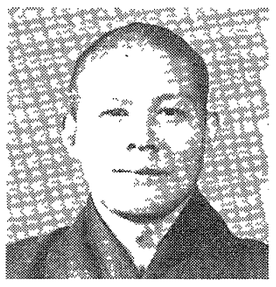


◇컷:이현발△불교대 미술학과◇

學問이 世界化 계속추진할터

不退轉의 정진만이 未來약속

李智冠총장 紀念辭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때 東國은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고 조국은 물론 전세계를 향해 우뚝 서게 되고…"

존경하는 吳敬圭이사장스님과 여러 이사님, 총단의 元老大德스님,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東國人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개교8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않으셨던 역대 재단이사 및 역대 총장의 공로와 선배 교수님들의 學問的 업적, 그리고 교직원및 학생들의 뜨거운 애교심과 사회 각분야에 대하여 돋보이는 높은 활약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은갖 風霜을 솔기롭게 克服하면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나날을 맞이하고, 샘이 깊은 물은 또한 가뭄이 극심하여도 그 물줄기 그치지 않고 목마른 자의 갈증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81개 성상을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 東國大學校를 두고 일컫는 말인것 같아 더욱 의미깊게 느껴집니다.

本校가 開校할 당시는 日本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다투어 침투하여 國權이 흔들리고 國民間에는 위기의식이 높아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國民의 자유와 民權을 신장하려는 근대적 개혁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읍니다.

그러할 즈음에 불교계의 선각자 김법린선생님께서 "佛敎의 大衆化와 敎育의 方向을 분명히 함으로써 國家와 民族, 나아가 全 人類가 참으로 必要로하는 인재를 敎育養成하는 敎育本旨를 설립하고 목적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本人은 世界의 先進大學을 향해 그 문호를 개방하고 學問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우리의 學問과 思想을 海外에 널리 소개하는 학문의 세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에 美國의 명문 U·C·L·A와 學問交流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고, 獨逸의 명문대학과도 현재 교섭중에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요즈음에 보기드문 우수한 學生들이 本校에 입학하여 學力면에서도 크게 향상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敎育여건을 위한 각종의 시설과 연구실도 현재 교설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건의하면서 노력할 때, 吳총장은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고 조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우뚝하게 象牙塔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되찾을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 될 것이며, 내가 東國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교는 뿌리깊은 전통에 걸맞게 상아탑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독점한때가 있었던가하면, 『왜 이렇게 발전이 늦느냐』는 질책도 수없이 받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을 우리 東國人은 잘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운데 창업이든 守城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更張의 끊임없는 정진이 부족한 때문으로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東國人 여러분!

역사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항상 깨어있는 先覺의 지도에 의해 그 시대 밑바닥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東國大學校도 이미 모교를 거쳐간 7만여 동문과 전 東國人이 어떻게 하면 東國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조명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지난날의 화려했던 전통과 현사에 연연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81개 星霜동안 겪어야했던 榮光과 汚辱, 분노와 환희, 이모든 것을 거울삼아 開校1세기를 향한 東國發展의 기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때 참다운 기념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開校80周年을 맞이한 지난 해에도 엄동한 바와 같이 本교의 建學이념에 입각한 敎育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아래 각자들에 의해 순수한 민족의 힘으로 불교정신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불국정토의 이상사회 건설하고자 교육구국의 목적아래 설립된 東國의 이상은 지금도 항상 새롭게 조명되어 있을 때였읍니다.

그러할 즈음에 불교계의 선각자 김법린선생님께서 "佛敎의 大衆化와 敎育의 方向을 분명히 함으로써 國家와 民族, 나아가 全 人類가 참으로 必要로하는 인재를 敎育養成하는 敎育本旨를 설립하고 목적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本人은 世界의 先進大學을 향해 그 문호를 개방하고 學問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우리의 學問과 思想을 海外에 널리 소개하는 학문의 세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에 美國의 명문 U·C·L·A와 學問交流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고, 獨逸의 명문대학과도 현재 교설중에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요즈음에 보기드문 우수한 學生들이 本校에 입학하여 學力면에서도 크게 향상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敎育여건을 위한 각종의 시설과 연구실도 현재 교설중에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요즈음에 보기드문 우수한 學生들이 本校에 입학하여 學力면에서도 크게 향상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敎育여건을 위한 각종의 시설과 연구실도 현재 교설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지난날의 화려했던 전통과 현사에 연연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81개 星霜동안 겪어야했던 榮光과 汚辱, 분노와 환희, 이모든 것을 거울삼아 開校1세기를 향한 東國發展의 기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때 참다운 기념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開校80周年을 맞이한 지난 해에도 엄동한 바와 같이 本교의 建學이념에 입각한 敎育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아래 각자들에 의해 순수한 민족의 힘으로 불교정신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불국정토의 이상사회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조명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운데 창업이든 守城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更張의 끊임없는 정진이 부족한 때문으로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東國人 여러분!

역사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항상 깨어있는 先覺의 지도에 의해 그 시대 밑바닥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東國大學校도 이미 모교를 거쳐간 7만여 동문과 전 東國人이 어떻게 하면 東國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조명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교는 뿌리깊은 전통에 걸맞게 상아탑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독점한때가 있었던가하면, 『왜 이렇게 발전이 늦느냐』는 질책도 수없이 받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을 우리 東國人은 잘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운데 창업이든 守城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更張의 끊임없는 정진이 부족한 때문으로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東國人 여러분!

역사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항상 깨어있는 先覺의 지도에 의해 그 시대 밑바닥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東國大學校도 이미 모교를 거쳐간 7만여 동문과 전 東國人이 어떻게 하면 東國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조명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교는 뿌리깊은 전통에 걸맞게 상아탑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독점한때가 있었던가하면, 『왜 이렇게 발전이 늦느냐』는 질책도 수없이 받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을 우리 東國人은 잘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운데 창업이든 守城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更張의 끊임없는 정진이 부족한 때문으로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東國人 여러분!

역사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항상 깨어있는 先覺의 지도에 의해 그 시대 밑바닥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東國大學校도 이미 모교를 거쳐간 7만여 동문과 전 東國人이 어떻게 하면 東國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조명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교는 뿌리깊은 전통에 걸맞게 상아탑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독점한때가 있었던가하면, 『왜 이렇게 발전이 늦느냐』는 질책도 수없이 받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을 우리 東國人은 잘알고 있읍니다.

明進에서 中央佛專까지

舊韓末, 기울어져가는 國運을 바로잡고 부지한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계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佛敎界의 선각자들이 三寶의 淨財를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官許 불교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東國의 前身인 明進學校였다.

佛敎徒에게 신학문을 敎授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한 佛敎硏究會 회원들이 都總務였던 李鳳潭을 중심으로 마침내 1906년1월 씀쿠대포를 설치하면서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갖추는 것외에 없다고 결론, 종앙에 전문학교 정도인 불교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元興」과 「明進」이라는 두 학교명칭중에서 明進學校를 校名으로 선택, 同年 2월4日 교육제정과 함께 동평류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중앙학림의 존재를 위협시하여 온건 日帝는 이를 계기로 하여 불교계의 여러 차례 승격교섭에도 불구하고 승격운동의 동력은 커녕 중앙학림을 폐쇄시켜 버렸다.

그후 불교계에서는 不退轉의 의욕을 가지고 학교설립의 준비를 모색하였다. 1925년에서부터 불교전문학교 설립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 마침내 1928년4월 30일 佛敎專修學校로 재개교하였다.

그러나 佛敎專門學校의 출현을 목메어 기다리던 사람들은 校名이 專修學校인데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학생들은 동맹휴학등을 통한 전문학교 승격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佛敎專修學校는 1930년4월 7일 中央佛敎專門學校란 명칭으로 승격되었다.

中央佛專은 연희전문, 보성전문과 함께 3대사립전문학교로 등장한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불교계의 오랜 염원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오늘의 東國大學校가 가능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1933년1월16일 중앙불전의 廢止案이 등장했는데, 그명칭위를 대학 살펴보면 敎務院재정령 편상 1923년에 인수한 普成高普와 함께 양교를 운영할수 없으므로 보조비가 적게드는 보성고보를 경영하고 중앙불전은 정리하자는 내용의 안건이었다.

이에 이 폐지안의 반대운동은 재경졸업생들의 긴급 실행회의를 통해 시작되었고 마침내 普成高普를 인계하기로 매듭을 지음으로써 이른바 佛專廢止案문제는 일단락지어졌다.

惠化에서 東國大學까지

10회 졸업생을 낸 中央佛專은 1940년6월19일 해화전문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학과증설로 그 내용까지 변동이 있어 지금까지 불교만의 전문교육적인 성격에서 탈피, 사회적·일반적인 성격으로 그폭을 넓혔다.

惠專시대는 학교자체로서는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과 일제의 탄압속에 분노를 삭혀야했던 가장 불행한 시기였다.

日人교장이 취임하여 제국대학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으며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였다.

1944년 5월30일 전시교육실시 특례법에 의해 강제폐교의 쓰라림을 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암흑기속의 혜전이었지만 문화활동은 활발하여 趙東卨(소설가, 洪永義, 金容泰, 金海鎭등 많은 학생문인들이 활동하였다.

그 가슴찬 해방과 더불어 혜전은 다시 문을 열어 일학시험을 가졌고 1946년 9월20일자로 東國大學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재단법인 東溪學院에서는 대학승격안이 성안되자 무엇보다도 시급한 교지확보에 나섰다. 현교지인 필동에 대지 2만3천9백87평을확보, 복조건을 7동을 신축하였다.

새로이 인가된 東國大學의 기구내용은 전문부(제1부) ‖ 불교학과·문학과·사학과, 전문부(제2부) ‖ 국문학과·문학과·사학과外 6개학과와 주야간과, 學部는 불교학과·문학과(국어학 전공, 영문학전공) 사학과의 3개학과였다.

여기에서 전문부라고하는것은 5년과정의 專門중학교를 졸업한후 3년간의 전문지식을 습득한자에 한하여 동일한 교과과정아래 新制敎育法의 실시에따라 연차적으로 소멸되는 잔존적인 학제였다.

1950년4월15일 대학의 이념과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대학의 본질을 천명하고 민족문화창조에 기여하며 인류가 추구하는 영지발전을 정착하기 위하여 보다합리적으로 학생의 생활력 경험적 관찰력, 추리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현재 지령 965호에 달하는 東大新聞이 창간되었다.

최초의 綜合大學승격

6·25사변으로 인한 전시연합대학을 거쳐 1953년2월6일 3개 대학원 신설과 함께 불교·문과·법정·농림대학의 4개대학으로 된 東國大學校의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은 국내 최초이다.

각 대학건물의 확충으로 활발히 이뤄져 1956년 12월20일에 石造館(明進館)이, 1958년 5월15일엔 科學館, 同年 12월30일에는 本館, 1962년에 敎授會館과 圖書館이 준공되었다.

4·19혁명 선봉에 서다

1960년 4·19당시 本校는 불의의 독재에 항거하여 社會의 不條理를 적극 척결하는 학생운동의 선봉이 되어 正義를 갈구하는 피끓는 학생으로 분연히 봉기했다. 약 2천명의 학생들이 石造館앞에 모여 교문을 출발, 경무대를 향해 선두를 달렸다. 이때 본교생 盧熙燮(법학3)군이 경찰의 발포에 의해 사망했으며,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64년6·3비상계엄에 의한 무기휴학령과 73년 유신독재체제에 항거로 인한 휴교령으로 학교의 주인이 東臣을 밟지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매머드 東國의 오늘

본교는 서울캠퍼스에 佛敎大·文科大·理科大·法政大·經商大·農科大·工科大·師範大·二部大등 9개단과대학에 52개 전공학과, 대학원·행정대학원·경영대학원·교육대학원등 4개 대학원과 16개의 부속기관, 21개의 부설연구소를 갖추고있다.

1978년11월27일 발족한 慶州캠퍼스는 人文科學大·自然科學大·法經大·韓醫科大등 4개 단과대학에 26개 학과를 비롯 10개의 부속기관과 2개의 부설연구소가 있는데, 지난 85년 대망의 의예과가 신설되었고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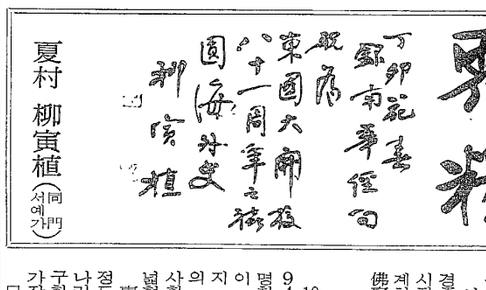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東國大學校는 부서질줄 모르는 金剛力그리고 물러설줄 모르는 일전부퇴의 정신으로 굳세게, 보람차게 精進해야할 것이다.

〈金龍泰 학술부장〉

개교81주년 기념휘호

適千里者 三月聚糧

夏村 柳寅植 (同서예가門)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화장품에 대한 '상식밖의 이야기'

'화장품은 고도의 피부과학입니다.' 어제의 기술은 이미 옛것 — 우리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그 첨단의 차원에까지 이르렀읍니다.
새롭게 바뀌어가는 화장품 기술과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화장품을 선택할 때입니다. '화장품은 더이상 기분으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묽은 것은 순하고, 진한 것은 독하다?

'난 그 화장품이 좋더라, 웬지 순한 것 같아'
당신은 화장품이 순하고 독한 것을 어떻게 가려내십니까?

피부 표면에 수분조절작용만을 중요시 했던 과거의 화장품을 두고 흔히들 '순하다, 순하지 않다' 라고 표현해 왔읍니다.
지금의 화장품은 피부 내부에까지 작용하여 피부노화 지연을 도와주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차원까지 왔읍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에는 — 효과높은 미용성분들이 피부 내부에까지 잘 흡수되도록 '순도높게' 만들어졌는가 — 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화장품회사의 Know-How에 의해 좌우됩니다.
연구소의 규모와 기술수준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구인력의 두뇌와 경험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화장품은 과거의 표현인 '순한 것'과 '순도높은 것'을 가려서 선택해주세요.

화장품은 안쓸수록 상책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화장품은 안 쓸 수도 있읍니다.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는 20세가 지나면서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는 대기오염, 각종 공해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피부의 건강을 잃기도 쉽습니다.
피부에 직접 와닿는 자외선조차도 노화를 촉진시키는, 피부의 무서운 적입니다.

화장품은 피부 청결작용과 함께 피부에 없거나 부족되는 영양·미용성분을 공급, 피부의 신진대사, 피부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피부노화를 억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나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니기 위해서는 항상 피부를 청결히 하고, '순도높은 화장품'을 선택하여 정성껏 피부를 가꿔주어야 합니다.

화장품은 피부의 필수품입니다.

외제니까 좋다?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굳이 외제화장품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이 마음에 들어' '세련되 보이잖아' —
외제를 선택하는 애매한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제를 사용한 결과 기분 좋은 것은 잠시뿐 —. 외제병이 피부병으로까지 번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 피부는 피부색, 두께, 피지분비의 양이 다름은 물론, 알레르기 반응도에서도 외제 8.8%, 국산 4.2% (대학 피부과학 연구실 발표)로 외제가 두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기후조건, 식생활이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의 피부특성을 기초로 한 외제화장품의 성분과 작용이 우리피부에는 맞을리 없기 때문이죠.

우리 피부 특성을 살려, 첨단의 기술로 보다 순도높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화장품을 애용하는 것도 고운 피부를 갖기위한 또하나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아모레화장품

未來심는 대학으로 새로와져야 한다…자기성찰속의 주체적 실천이 과제

本校가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 부단히 발전해오긴 했으나 실이지만 아직도 산재해 있는 문제는 많다. 이것은 또한 동국 1백주년의 길목에 선 오늘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개교81주년을 맞이하여 本紙에서는 李智冠 총장과의 특별대담을 마련, 오늘 우리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등 국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李智冠 총장 특별대담

『東國1세기 主役은 바로 우리 자신들』

「1백주년기념사업회」 곧 발족

해외교류 강화등 東國의 세계화 실현

◇대담자 : 金 勝 培 本社 편집장
◇일 시 : 1987년5월1일
◇장 소 : 총 장 실

▲편집장=學園업무로 다망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데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개교81주년을 맞이하여 東國人이 굳게단합하고 있는 학교발전반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교80주년을 맞아 동국발전에 대한 기대가 내외로 고조되었고, 이에따른 각종 기념사업과 행사들이 치루어졌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것 같습니다. 지난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와 개교81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도될 구상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총장=「80주년기념사업회」에서 구상한 행사들은 크게4가지형태로 부류할수있습니다. 즉 출판행사, 현지답사, 학술행사및 전시회등으로 나누어져 계획되고 치러졌습니다. 좀더 체적으로 살펴보면 「佛敎와 제과학」이란 논문집 발간, 「사진으로본 동국대학교 80년사」등의 편찬과 각각 80년사」 「불교문화연구원」 「법화과」 등 각 학술단체의 다양한 학술심포지움 등이 열렸고, 동문시화전과 동국80년기념사진전및 도서전시회 등의 각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밖에 연극공연이 있었으며, 만해시비 건립과 「개교80주년기념관」은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간에 80주년 기념사업이 「말만의 잔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는 좀 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념사업 자체가 중심이었고, 개교80주년기념축제 학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축소조정되었기 때문에 떠들썩한 「축제현」의 행사가 부족했던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어느때보다도 실속있고 충실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보다 실질적인 평가는 곧 열릴 「80주년 기념사업평가회」에서 질좋은 논의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행사를 총정리한 카탈로그도 곧 제작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편집장=올해의 행사계획으로 기획되고 있는것은 무엇인지요.

▲李총장=개교81주년 기념행사로 특별히 구상돼 있는 案은 없읍니다. 오히려 80주년기념관, 만해시비, 불교종합병원의 건립등 당면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주력해야겠지요. 다만가칭 「개교1백주년기념사업회」를 구성해 장기적안「북으로 동국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집장=學園업무로 다망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데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개교81주년을 맞이하여 東國人이 굳게단합하고 있는 학교발전반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교80주년을 맞아 동국발전에 대한 기대가 내외로 고조되었고, 이에따른 각종 기념사업과 행사들이 치루어졌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것 같습니다. 지난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와 개교81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도될 구상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총장=「80주년기념사업회」에서 구상한 행사들은 크게4가지형태로 부류할수있습니다. 즉 출판행사, 현지답사, 학술행사및 전시회등으로 나누어져 계획되고 치러졌습니다. 좀더 체적으로 살펴보면 「佛敎와 제과학」이란 논문집 발간, 「사진으로본 동국대학교 80년사」등의 편찬과 각각 80년사」 「불교문화연구원」 「법화과」 등 각 학술단체의 다양한 학술심포지움 등이 열렸고, 동문시화전과 동국80년기념사진전및 도서전시회 등의 각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밖에 연극공연이 있었으며, 만해시비 건립과 「개교80주년기념관」은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읍니다. 학간에 80주년 기념사업이 「말만의 잔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는 좀 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념사업 자체가 중심이었고, 개교80주년기념축제 학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축소조정되었기 때문에 떠들썩한 「축제현」의 행사가 부족했던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어느때보다도 실속있고 충실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보다 실질적인 평가는 곧 열릴 「80주년 기념사업평가회」에서 질좋은 논의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행사를 총정리한 카탈로그도 곧 제작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편집장=다시 80주년기념사업이야기가 되겠읍니다만는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업은 역시 밖으로 나타난 「80주년기념문」과 「만해시비」의 건립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80주년 기념문」은 부족한 휴식공간과 東國文化의 발표場을 보완하는 시설들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기공식이후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학생들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는데요.

▲李총장=결론기로 인해 기대대로 되고 있다고 볼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부터 세밀히 꽁고하다보면 오히려 추진하고 있는 일의 혼선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 학교대표자 전원 구속

오전 8시부터 일제히 검거 착수

5·3 기념식 준비위원회 간부 등

5·3 기념식 준비위원회 간부 등 학교대표자 전원이 4·13 호헌조치 이후 처음으로 5일 오전 8시부터 일제히 검거 착수에 들어갔다.

이번 검거 선풍은 지난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 이후 학생들의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5·3 기념식 준비위원회 간부 등 학교대표자 전원을 구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일제히 검거 착수에 들어갔

○…다국적 기업만 일반적으로 수개국에 걸쳐 영업…○
○…내지 제조거점을 가지고 국가적·정치적 경계에 구…○
○…애받지 않고 세계적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
○…을 말한다。 ○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기술이전은 기술수출국의 기…○
○…술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윤을 극대화…○
○…려는 그속성때문에 기술이전장애 여러가지 제약요…○
○…인이 기술수출국에 작용한다。 ○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對韓기술이전 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이논…○
○…문을 싣는다。 〈편집자註〉…○

對韓 技術移轉의 問題點과 對應策

薛永基 〈법경대교수·國際貿易論〉

Ⅰ、緖

우리나라는 60년대초까지 技術蓄積과 資源의 부족및 관련산업의 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기술수준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에 의하여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축적이 이룩되어 최근에는 발전설비플랜트나 大型 船舶등을 자체의 기술로 해결할 정도까지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기술이전이 더욱 요망된다고 할수있다。

그것은 이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첨단기술과 核心技術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0년대후기 및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술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기술성장을 저해하는 적정한 기술의 이전회피、과도한 기술사용료의 요구、進出企業을 통한 시장지배、종합적인 기술지식요소를 계획적·합리적으로 유용하게 확산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전기술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수있다。

기술은 격차의 一時性에 의하여 반드시 이전되어지게 되는데、이러한 기술이전은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①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자의 이익 보호되어져야 하므로 독점성을 갖게된다。

②기술공여자가 기술가격、이전조건、기술관리、사후처리등에 있어서 특혜를 가할수 있기 때문에 기술공여의 일원이 강하게 작용한다。 ③첨단기술과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의 주체가된다。 ④이전기술이 하드·소프트기술이든간에 기술개발국 자신의 이윤추구와 결부되므로 한계성을 지니게된다。 ⑤기술공여국과 도입국간에 도입조건상의 비결합성、⑥이전되어지는 기술은 기타요소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⑦기술이전은 인접국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등으로 대별할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기술선진국의 이윤극대화와 결부되어지게 된다。

Ⅱ、技術移轉의 定義 및 特性

현대의 기술이전은 민간투자、교육훈련、정보교류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행하여지고 있고 기술혁신적 측면을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그것은 ①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는데 필요한 기술·정보의 계획적·합리적인 이전(D.L.Spencer)、②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 또는 현재에 성취한 기술성과를 도입국에 유익하게 재현하거나 유용하게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하는 것(B.M.Köhler)、④특수한 기술을 설명적으로 有用化하기 위하여 습득한 노하우(know-how)를 생산실체로 이전하는 과정(D.J.Teece)등이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기술이전이란 「분리가능한 기술지식요소를 계획적·합리적으로 유용하게 확산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전기술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수있다。

기술이전은 결국 기술수용국과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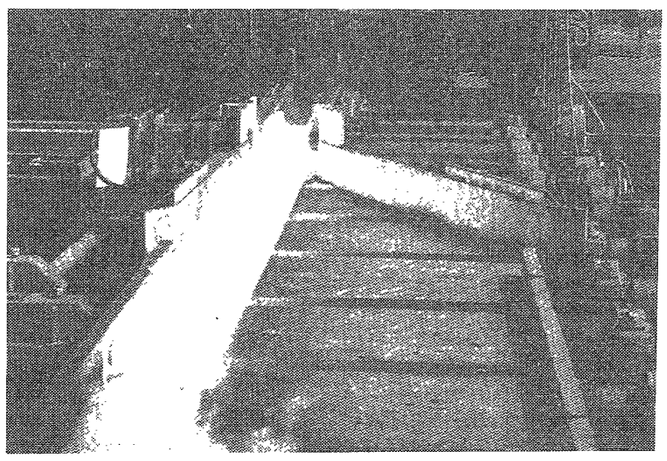
따라서 라이선싱보다는 기술이전에 대한 흡수·소화가 선행되어져야 하고、이보다 더욱 효율적인 「라이선싱+合作投資」 형태의 기술도입방식이 바람직하다。

바、과도한 制限條項들의 첨가

도입기술에 대한 제한조항에 있어서는 제품의 수출시장제한에서 비롯 속괄물공업이 60%、부품및 원료부·입제한에서는 목재지류、펄프등의 50%、관련기술개발금지에서는 일반기계와 섬유공업이 20%로서 가장 많다。

이러한 제한조항들은 도입기술에 대한 응용、연구·개발에의한 신기술의 성숙을 저해하는 각종지원제도(기술개발 준비금제도、기술개발자금 융자제도) 등의 기술도입 지원정책도 다국적기업의 對韓기술이전을 촉진시킨 주요한 동기라고 볼수있다。

한편 이러한 이전기술은 도입국측에서 아래와 같은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한요인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국적기업의 기술을 조속히 소화·흡수、응용개발하여 관련산업에 확산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술자립화의 관건이 된다。

가、技術導入의 편중

우리나라는 1986년4월까지 총 3천6백95건의 기술도입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 일본에서 54·6%인 2천19건으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고、다음이 미국으로서 23·4%인 8백64건、서독이 5·4%인 2백1건에 이르고 있다(財務部·金融統計·1986)。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에서 총기술도입건수가운데 78%인 2천8백83건을 도입하고있어 실한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기술도입이 편중되어 있는데、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단계가 일본과 비슷하고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원자재、기술 등이 동일하여 지리적인 인접및 언어 소통이 용이하다는데 기인하고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이 소유한 동일계기술을 타국에서 도입할 경우에 비용(cost)이 상승하여 同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 국제경쟁에 있어 수출국과의 상충이 거의없이 수출국에 걸쳐 영업…○

나、質的低位와 중복도입

우리나라 기업이 도입한 기술중에서 첨단기술이 29·6%、중간기술이 44·4%(1985년도 올산공업지구 실제조사、이하 같음자료)를 점유하고 있어 중간기술이하의 기술도입이 약 70%나 되고 있어 도입기술의 질적 저위수준을 면치 못하고있다。

이는 도입기술의 평가미흡과 근시안적인 기업의 기술도입정책、안일한 사고방식등으로 인하여 낙후된 기술을 도입한데 기인한다。

이와같은 실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기술적 성장을 저해하게 되므로 첨단적이고 핵심적인 집합기술의 분리도입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기술의 중복도입에 있어서는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데、이는 불필요한 외화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술도입단체가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배분하는 정책이 효율적이 되어야 한다。

다、導入技術의 應用·硏究·開發未洽

도입기술에 대한 응용·연구·개발이 충분할경우 관련산업에로의 확산이나 토착기술화가 지연된다。

따라서 기술도입기업이 첨단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는 국내의 민족기업및 관련산업과의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며 확산효과가 최대한으로 나타날수있는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라、適正技術의 선택능력 및 技術情報의 부족

우리나라의 기술도입기업 가운데에서 약40%정도가 적정기술의 선택능력부족과 기술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와 각종기술을 전문으로 관장하는 Cse企業(Consultant Engineering Co)과 기술도입대행기관、기술연구기관인 각종기술연구소(KIET,KDI,KAIST등)와 각 대학의 부설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신속·정확하게 기술도입기업이 적정기술을 선택할 수있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도입 관련기관과의 정보에 관한 컴퓨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마、라이선싱의 지나친 선호

기술도입방법에 있어서 라이선싱을 지나치게 선호하게 되면 소요기술의 자체개발과 응용·연구·개발을 저해하고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어 기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라이선싱의 목적이 ①관세회피와 시장침투 ②수출국의 산업지배 ③PLC가 단명할 경우 ④기술의 성질이 단순한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Ⅲ、對韓 技術移轉의 動機와 過程

다국적기업측에서의 對韓기술이전 동기는 ①안정적 노동력의 확보、②관세및 수입규제의 회피、③생산제품의 제3국에로의 판매거점 확보、④자원확보、⑤기술이전에 따른 각종특혜 및 인접국가에 대한 수출촉진、⑥노후시설의 이전 등이 주요한 동기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소요기술개발의 장기화、연구·개발노력의 결여、기술자원의 부족、민족산업의 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이전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안정적 조치인 기술사용료의 대외송금보장및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외자도입법 제4조 및 24조) 와 외국인 파견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제6조) 및 기술이전은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①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자의 이익 보호되어져야 하므로 독점성을 갖게된다。

②기술공여자가 기술가격、이전조건、기술관리、사후처리등에 있어서 특혜를 가할수 있기 때문에 기술공여자의 일원이 강하게 작용한다。 ③첨단기술과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의 주체가된다。 ④이전기술이 하드·소프트기술이든간에 기술개발국 자신의 이윤추구와 결부되므로 한계성을 지니게된다。 ⑤기술공여국과 도입국간에 도입조건상의 비결합성、⑥이전되어지는 기술은 기타요소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⑦기술이전은 인접국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등으로 대별할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기술선진국의 이윤극대화와 결부되어지게 된다。

多國籍기업 對韓기술移轉의 문제점과 대응책

첨단 集合技術의 分離導入 노력필요

일본에 偏重된 도입선 유럽·북미로의 다변화 시급

Ⅳ、對韓 技術移轉의 問題點과 對應策

우리나라는 60년대초부터 꾸준히 多國籍企業으로부터의 이전기술을 도입해 응용、연구·개발하여 관련기업에 확산시킨 결과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축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술도입의 일부국가및 산업 편중、중복도입、평가력부족등) 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앞으로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技術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技術이전의 원활한 촉진을 저해하는 제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가、技術導入의 편중

우리나라는 1986년4월까지 총 3천6백95건의 기술도입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 일본에서 54·6%인 2천19건으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고、다음이 미국으로서 23·4%인 8백64건、서독이 5·4%인 2백1건에 이르고 있다(財務部·金融統計·1986)。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에서 총기술도입건수가운데 78%인 2천8백83건을 도입하고있어 실한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기술도입이 편중되어 있는데、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단계가 일본과 비슷하고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원자재、기술 등이 동일하여 지리적인 인접및 언어 소통이 용이하다는데 기인하고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이 소유한 동일계기술을 타국에서 도입할 경우에 비용(cost)이 상승하여 同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 국제경쟁에 있어 수출국과의 상충이 거의없이 수출국에 걸쳐 영업…○

나、質的低位와 중복도입

우리나라 기업이 도입한 기술중에서 첨단기술이 29·6%、중간기술이 44·4%(1985년도 올산공업지구 실제조사、이하 같음자료)를 점유하고 있어 중간기술이하의 기술도입이 약 70%나 되고 있어 도입기술의 질적 저위수준을 면치 못하고있다。

이는 도입기술의 평가미흡과 근시안적인 기업의 기술도입정책、안일한 사고방식등으로 인하여 낙후된 기술을 도입한데 기인한다。

이와같은 실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기술적 성장을 저해하게 되므로 첨단적이고 핵심적인 집합기술의 분리도입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기술의 중복도입에 있어서는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데、이는 불필요한 외화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술도입단체가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배분하는 정책이 효율적이 되어야 한다。

다、導入技術의 應用·硏究·開發未洽

도입기술에 대한 응용·연구·개발이 충분할경우 관련산업에로의 확산이나 토착기술화가 지연된다。

따라서 기술도입기업이 첨단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는 국내의 민족기업및 관련산업과의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며 확산효과가 최대한으로 나타날수있는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라、適正技術의 선택능력 및 技術情報의 부족

우리나라의 기술도입기업 가운데에서 약40%정도가 적정기술의 선택능력부족과 기술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와 각종기술을 전문으로 관장하는 Cse企業(Consultant Engineering Co)과 기술도입대행기관、기술연구기관인 각종기술연구소(KIET,KDI,KAIST등)와 각 대학의 부설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신속·정확하게 기술도입기업이 적정기술을 선택할 수있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도입 관련기관과의 정보에 관한 컴퓨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마、라이선싱의 지나친 선호

기술도입방법에 있어서 라이선싱을 지나치게 선호하게 되면 소요기술의 자체개발과 응용·연구·개발을 저해하고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어 기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라이선싱의 목적이 ①관세회피와 시장침투 ②수출국의 산업지배 ③PLC가 단명할 경우 ④기술의 성질이 단순한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일부업종에 편중

기술도입에있어 기계와 전자·전기업종이 전체의 약50%를 점유하고 있어 지나치게 일부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편향적 성장을 초래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과의 이중적 산업구조를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한 기술적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기술도입이 저조한 통신、전력、농축산업에 대한 기술도입도 확대될수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도 다국적기업의 對韓투자환경의 조성및 투자유치정책의 실시、産學협동、전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고양도 우리나라의 기술성장을 달성시키는 촉진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Ⅴ、結

上記와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技術導入先의 다변화、②라이선싱+合作投資形態의 기술도입 적극 유치、③적정기술의 도입、④평가력의 제고、⑤집합기술의 도입、⑥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일부업종의 편향적인 기술도입의 배제 ⑦도입기술에 대한 응용、연구·개발비의 지원확대등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안정적인 기술도입이 저조한 통신、전력、농축산업에 대한 기술도입도 확대될수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도 다국적기업의 對韓투자환경의 조성및 투자유치정책의 실시、産學협동、전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고양도 우리나라의 기술성장을 달성시키는 촉진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각종의 제한조항 신기술 創出저해

효율적 投資 유치정책도 병행해야

첫째과정은 도입한 장비를 가지고 외국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단계인 실천기로서 전자산업、할공분야、정밀기계등의 技術集約的 산업으로 비교우위는 선진국에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도입하여 축적하려는 단계이다。

둘째과정은 도입기술이 소화·흡수되어 기술축적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消化期로서 다자원소비형 산업인 철강·비철금속·섬유화학·시멘트 등의 기초원자재가 이단계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므로 80년대까지는 주요 수출산업이 된다。

세째과정은 소요기술을 자체조달하게 되는 改良·自體開發期로서 非集合形態로 기술이 이전되며、자체 기술이전은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①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자의 이익 보호되어져야 하므로 독점성을 갖게된다。

②기술공여자가 기술가격、이전조건、기술관리、사후처리등에 있어서 특혜를 가할수 있기 때문에 기술공여자의 일원이 강하게 작용한다。 ③첨단기술과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의 주체가된다。 ④이전기술이 하드·소프트기술이든간에 기술개발국 자신의 이윤추구와 결부되므로 한계성을 지니게된다。 ⑤기술공여국과 도입국간에 도입조건상의 비결합성、⑥이전되어지는 기술은 기타요소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⑦기술이전은 인접국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등으로 대별할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기술선진국의 이윤극대화와 결부되어지게 된다。

鹿野苑 歷史 감춰진

▲「오늘의 歷史에 대해서는 後世 歷史家들이 올바로 평가해 줄것이다」라는 말에 우리는 상당히 익숙해 있다。 과거 아니라 最高 통치권자가 공식석상에서 즐겨 사용하던 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에 대한 평가는 후세史家들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말은 바 일에 충실해야한다」는 論理로 해석되어져 무슨 속담이나 格言처럼 쓰여왔으며 지금도 이따금씩 대할수있는 文句인 것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말처럼 묘한 영운을 풍기는 말도 없다。 ▲수선 統治權者가 즐겨 사용했다는데 촛점을 맞추어 음미해 보면 오늘의 歷史家는 오늘의 역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 오늘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일방이쫓지 말라는 위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역사를 오늘에 적절하게 하지않는 강력한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邊旁自出」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대입시키면 통치권자입장에선 매우 흥미있는 논리가 유추된다。 즉、현재의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껄끄럽운 恥部를 파헤쳐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막고、후세史家들에겐 그에대한 조그마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홀히들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해방이후 불과 40여년이 흘렀건만 권력의 黑幕에 가려워 영원한 비밀로 간직된 사건이 어디 한둘인가。 후세 역사가들이 무슨 「응삐는 재주」가 있다고 권력에 의해 증거가 인멸되고 왜곡·과장·허위화된 역사적 사실을 실증하고 올바로 기록할수 있단 말인가。 ▲60년대 초반、「미국의 영원한 이 존 F·케네디가 암살된 직후 슬픈 루머가 떠돌았다。 그중에서도 권력층내에서의 살생이 가장 신빙성을 갖고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 암살사건의 수사자료는 국가극비로 취급되어 50년간 비공개화됐고 지금은 권력층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게 외신보도다。 후세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걸 증명해 주는 가장 단적인 예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 시대、그상황을 체험한 사람이 적어야는 것이다。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어야한다는 전제가 붙어야 하지만 말이다。 〈樂〉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1년 동국대학교 개교81주년 국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2교구본사 大興寺	주지 임원두	대중일동
제23교구본사 觀音寺	주지 황형관	대중일동
제24교구본사 禪雲寺	주지 태허	대중일동
제25교구본사 奉先寺	주지 김월운	대중일동
대각회 대각사	주지 김효경	대중일동
구룡사	주지 이정우	대중일동
진관사	주지 진관	대중일동
칠보사	주지 김선근	대중일동
화계사	주지 이오륜	대중일동
도선사	주지 박현성	대중일동

■특 별 기 고 /한국문학에서의 東國文學의 위치조명과 현상황의 반성

○…本校가 올해 개교81주년의 긴 연륜이 나이테를 두르고 그 발전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때, 동국의 뿌리를…○
○…머리에 떠올림에 동국의 전통은 곧「문학」이라는 귀결내림에 있어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그러나 과거 自他의 공인적 금자탑의…○
○…위치는 오늘날 외적공세와 내적태만으로 혹, 흔들림이 있는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로 스스로 조심스레 진단할 때다。이에 本稿는…○
○…앞서간 숱한 성좌들의 빛이 영원히 빛날수 있도록 이 붓골 (筆洞) 터에 문학의 성역화를 이루는 계기마련이 되고자한다。 <편집자註>…○

東國文學, 피사의 사탑과 등식이 될려나…

崔 淳 烈
<同門시인·국교과전강>

일이다。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할 일이 못된다。

이미 건강한 회복력의 기운이 팽배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의 실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 안도하는 한편, 이 발전적 시점에 이르러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각오의 뜻을 굳게 다지고자 한다。

현재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나 目下 문학수업에 매진하고있는 재학생들 사이에 어느새 이러한 공감대가 든든하게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자신있게 확신할 수 있다。이런 계제에 그동안 숱한 동문문학인들의 노력으로 쌓은 탑신을 새삼 더듬어보고 오늘의 지침을 가다듬고 내일의 전망을 밝혀보아야 겠다。

Ⅰ. 프롤로그

동국 81년의 연혁을 되돌아보는 일은 실로 가슴 벅찬 일이다。더구나 한국문학의 주축으로 자타가 공인해온 동국문학의 성좌를 떠올릴 때 어떠한 사족도 필요없이 불교정신과 더불어 오로지 동국의 정신사의 진수를 보게 된다。오늘날까지 동국의 우물을 샘솟게 하고 열매 풍성히 하게한 동국문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검을 하게 되면, 근자에는 대뜸「새롭게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통렬한 반성과「냉철한 이성과 자아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뼈아픈 자기진단을 내리곤해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양적으로 호화군단을 거느리는 양상으로 해서, 또는 영세성을 면하지못했던 지난날의 한국문단 풍토에서의 실력행사 등으로해서 제몫을 누리던 시절을 다시 구가하겠다는 생각은 큰 착오이다。또한 오늘날 대학이 가내수공업적인 문인양성의 기능에만 골두할수는 없다。허나 다양화되어가는 문학의 제반양상에 적극적인 호응을 할수있는 현실적 방책을 도모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의 동국문학이 이대로 주저앉는 형국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Ⅱ. 호화로운 성좌

일컬어 동국문단사를 일별하게 되면 정녕 지난날의 동국문학이 곧 한국문학이었음이 자명하다。명진학교로의 개설이래 중앙학림·불교전수학교·혜화전문시대를 거쳐 동국대학교로 이어져오는 초입에서부터 문학의 우뚝한 봉우리를 만나게 된다。

남이 뭐라고 하든, 불교전문강원 출신의 韓龍雲을 첫머리에 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다。시집<님의 침묵>이 끼친 한국문학에의 자양은 큰 젖줄 바로 그것이었다。

이어서 시인으로 <촛불><슬픈목가>의 신석정이 놓이고, 시조의 조정현과 <청시> 의 김달진, <화사집><귀촉도>의 서정주, <향미사>의 이원섭, <풀잎단장><역사앞에서>의 조지훈, <강강수월래>의 이동주, 아울러 함형수, 김어수, 김용태, 오화룡등이 잇대어진다。

이들이 활동했던 문학동인지들이<시인부락>·<백지><시원>·<맥>등 이였으며 이 동인지들이 바로 한국근대문학의 요람이였음도 분명한 일이다。이때 소설에서는 최인욱, 홍구범, 서근배, 곽하신등이 자리하게 된다。평론에는 정태용, 조연현이 나서고 시나리오에 최금동이 있다。초기에 이렇게 문학의 저수지가 되게된 연유는 어디에 있겠는가。당대의 현실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고 한편 들끓는 문학의 정열을 결실맺게 해줄 용광로는 오로지 동악의 동산일수 밖에 없었음은 한국 대학사를 펼쳐보면 대뜸 알수 있듯이, 오늘날 질짓 버티고 있는 보성전문·연희전문을 한껏 앞선 불전·혜전의 엄연한 성가라 하겠다。

앞서 예시한 동인지 외에도<룸비니><일광>등 교지가 발간되어 문학발이 되어주었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동국을 지도했던 당대의 석학 문인들의 면면은 가히 견줄바가 없다。박한영의 시문학, 권상로의 문학사와 한문학, 양주동의 동서문학, 정인보, 이병기, 박종화, 김영진, 김기림, 정지용, 피천득, 김진섭, 이헌구·이하윤, 김광섭등의 손길에서 빚어진 찬연한 결실을 자랑할만하다。

이같은 기라성의 보금자리는 누구에게도 양보없이 이후의 오늘까지 이어지고있다고 본다。해방을 맞고 동국대학 시절로 접어들면서 명실공히 동국문학의 전통은 굳게 다져진다。

대동아전쟁의 소용돌이를 겪고 다시 태어나 동악 언덕에 들어선 문학청년들은 앞서의 선배들에 조금도 뒤질 실력이 아니었다。김종길, 고원, 정봉래, 김장호가 동국문학의 자양을 한껏 취하고 나섰다。학내에 문예강좌를 열고 종로YMCA강당에서 동국대학 제1회 시낭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시내대학 합동의 작품합평회를 주도하여 해방 한국문단의 싱싱한 기수가 되었다。이들 외에<은하식물><동인지를 엮었던 김돈식, 김필한, 이종산이 있고 이희범 김창훈, 이상필, 최광열 등이 활동했다。이즈음 1948년 6유<동국>창간호가 나오고, 1949년 5월에<동국시집> 1집을 펴내게 된다。

그 이후 이<동국시집>은 한낱 대학의 학생시집이 아니라 한국시단의 주목받는 당당한 시집역할을 해내었다。이 시집을 통해 최인희, 한승권, 진인탁, 사상열, 이우출, 박함식 등이 활동하게된다。이때 소설<오발탄><학마을 사람들>의 이범선이 시인 김상억, 구경서 등과 함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Ⅲ. 한국문학의 추역

만개한 동국문학은 1949년 4월 <동국대학 문화제>의 잔치로 펼쳐진다。그러나 6·25의 전화를 맞게된 대학은 소위 피난대학으로 연명하게 된다。

이때 평론가 이철범, 시조시인 최재호가 나선다。전쟁의 와중에 주춤하던 동국문학은 1952년 피난지 부산에 시낭송회를 열고 여기 소년등단으로 주목받던 <적막강산>의 이형기가 크게 활동하게 되며 1953년12월<동국시집> 2집이 속간되면서 일

"지금에 와서 과거 양적으로 호화 군단을 거느린 업적만으로 실력행사를 구가하겠다는 것은 크나큰 착오이다"

약 되살아난다。앞서 출발한 서정주, 조지훈, 조연현, 이범선, 이원섭, 김장호, 이형기, 유현목, 장한기, 이근삼등의 활동에 더보태어 최재복, 신기선, 박함식, 이장래, 황명, 이우종, 김동준, 송원희, 송혁, 강민, 신경림, 송등균, 이우석등이 실로 한국문학의 주역들로 뛰게 되었다。

실로 이때부터 동국문학은 르네상스시절을 구가하게 된다。1960년대를 접어들면서다

양한 개성의 목소리로 학국문학의 주류를 이끌어나갈 동국문학인들이 속속 배출된다。가히 동국대학은 문인의 성지가 되었으며「문학을 하려면 동국대로」라는 공공연한 긍지가 드높았던 시절이다。

문단을 거느렸던 선배문인들, 교단 교정에서 끊임없는 열성으로 진두지휘했던 교수들, 참을 수 없는 열정으로 문학열을 앓던 재학생들의 어울어짐이 만만했던 시절이다。

시에 강태열, 조상기, 박진환, 김사림, 최원식, 김초혜, 박제천, 강희근, 정의홍, 홍희표, 마종하, 홍신선, 문정희, 문효치, 김규화, 정양, 하덕조, 황순구, 김정웅 등이였고, 소설에 김문수, 김용철, 유우희, 한용환, 조정래, 황석영, 등 평론에 김운학, 홍기삼, 조병무, 장문평, 김시태, 이내수 등, 희곡에 오학영, 윤청광, 김홍우, 김숙현 등 그야말로 기라성의 집합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들은 모두 현재의 한국문학의 중추로 그 몫을 다해주고 있다。

Ⅲ. 동국문학의 가늠자

이러한 호화진용에 뒤질세라 학내에서의 문학열기는 더해간다。매주 부단히 이어지던 합평회, 시화전, 동인지 발간, <동국문학>지발간, <동국문학연>개최, 문학강연회개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문학서클과 동인활동도 다양하기 짝이 없었다。<동국문학회><동대문학회><아담><다다><시향><용운><예우><실험> <말><하여><갈매><개두릅> <입던><외인>등의 문학동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활동하였다。이러한 현상은 실로 양립하여 경쟁하고 때론 서로 충고와 격려를 통해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축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이 풍토를 이렇게 진술한 바도 있다。「…선배와 후배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전통의 도도한 흐름은 끊일없는 시인을 만들게 했다。강의실, 도서관, 특히 잔디밭에서 둘러앉아 작품을 걸고 토하고 습집에서 인생과 철학을 말하던 가장 어리석으면서 영악한 군상들이 자신의 문학을 색칠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물론 이 왕성한 열기의 허실은 냉엄하게 지적되어야할바도있다。

어쨌던 이같은 풍성한 놀음을 통해 동국문학의 저류는 흐르고 있었고, 또한 그 흐름에서 자기문학을 나름대로 성취시키고 있었다。

이즈음 시에 방석준, 김정범, 이명주, 최순열, 한신, 채수영, 윤석성, 박주관, 김강태, 함성주, 김택근, 이상봉, 이진등 소설에 신상성, 이계홍, 김원석, 김신, 안양자, 오정아, 이상문, 이원규, 김갑수, 정찬주, 신광식등 평론에 김선학, 김병택, 강성천, 홍정운, 유한근 송희복등, 아동문학에 박춘희, 정채봉등, 희곡에 오태영등이 문단에 나서 선배문인들의 역량을 뒤쫓고 있다。

이에 뒤이어 근년에 정광호, 방기홍, 윤성근, 남기정, 이경교, 박혜경, 윤준호가 데뷔하여 활동을 맹렬히 하고있으며, 재학생중에서도 강서중, 공광규, 강능원이 정식으로 등단하여 그 앞날을 약속해주고있다。

이들이 바로 동국문학의 앞날을 예감하게 하는 가늠자이기 충분하다고 보겠다。

이렇게 살펴보면「침체」니「부진」이니 하는 질타와 반성은 얼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틀렵하다。

Ⅴ. 무서운 기대주들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름들을 보았다。솔직히 말해서 본의아니게 이 지면에 드러나지 않은 인명도 많다。이만한 인적자산을 가지고 그야말로「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안팎에서 질책하는 소리도 들리는가 보다。그러나 이런 염려를 거두어들일 재목들이 아직도 동악의 구석구석에 시퍼렇게 눈뜨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래서「샘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음」을 굳게 믿는 것이다。

교정의 벽보에 나붙은 합평회 안내문과 강의실과 세미나실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내일의 문학인들을 만나게 될 때 동국문학의 전통이 무엇인지 터득하게 된다。근래 해마다 엮어내고 있는 사화집이나 동인지 성격의 작품집이 제법 번듯하게 나오고 있음에라, <동국문학회>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짐은 반가운 조짐이 아닐수 없다。

그들의 활동이 제각기 참신한 목소리와 가열한 문학정신을 가다듬고 있음을 높여겨 보게 된다。과연 그동안의 숱한 선배들이 미처놓친 알뱅이를 기여코 찾아들고 나서겠다는 태도의 당당함에 안도하는 것이다。때로는 그것이 지나친 오기와격렬한 반응에 좀 기운다해도 상관할 바 없겠다。물론 그런 오기와 반응 뒤에 더많은 자기모색의 갈등과 방황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결과 진정한 자기문학을 세우는 엄연한 노력은 열배를 실하게 맺게 되리라 믿는다。

Ⅵ. 어떤 품앗이

재학생들의 이런 안간힘에 동국문학의 전통은 짐이 되고있는가 빛이 되고있는가。

동국대학 출신의 선배문인들이 결성한<동국문학인회>라는 기구가있다。이 모임의 주요목적의 하나가 동국문학의 전통을 구현하는 각성의 자리를 갖자는것과 후배들의 문학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뒷받침하자는 것이다。우선 문학 활동의 조장과 지원의 일환으로매년<동국시집>의 간행과<창작교실>운영에 지원을 아끼지않고 있다。

또 금년부터 재학생 창작지원기금을 확보하여 베풀것이다。그리고 캠퍼스 내에 부

격려사의 한귀절로 화석화한 전통은 무의미 韓國文學위한 문학성역 이뤄야
실험정신으로 타예술과 부단한 교신가져야

지가 확보되는데로 동국문학기념비 건립과 문학공간의 마련을 기획하고 있다。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작지도를 포함한 계획하고 있다。

교내적으로 동문문인교수들이 절대적인 열성으로 동국문학의 새로운 기풍을 일구리라 다짐하고 있다。대학에서의 문학교수행위가 문학연구의 차원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문학을 연구 차원에서 교수하는 일만큼 동국문학의 실제적 창작활동의 고양에도 실혈을 기울일 당위성은 있는 것이다。

시에있어서 김장호, 이형기 김동준, 최순열 소설에있어서 한용환, 평론에 있어서 홍기삼 이내수, 김선학교수들이 그룹을 해넘에 총분하리라 확신하는 바다。

이렇게 루트익은 교내외 동문문인과 문학교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지도에 호응하는 자세가 재학생들에게 새삼 요구된다。물론 문학이개인적 자존과 진실을 추구하는 작업이라는 신념으로 여떠한 공공연한 부추김은 소용되지 않는다고 우길지도모른다。허나 오늘날 문학이 밀실의 고독한 행위라는 고집으로 주위로부터 짐짓 격리되고자하는 태도는 지양할필요가 있다。

Ⅶ. 풀어야 할 매듭

그렇다。동국문학이 그동안 쌓아온 전통의 높이가 결코 하찮은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그러나 그 높이만 덧없이 우러러보면서 마냥 자위할 하등의 열치가 없다。

선배문인들이 앞에서 밝힌대로 후배들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도 의미가 깊지만, 무엇보다도 탁월한 문학작업을 도도히 보여주는것이 급선무일 것같다。가르치고 일깨우는 방도로는 좋은 문학작품을 충분히 실천해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성싶다。

재래의 안가한 타성적 정서와 부단히 모색하지 않는 기교를 떨쳐버리고 신선하고 고급한 작품으로 후배들을격려 고무시켜야 한다。이에후배들도 한층 분발하여 자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고있는<동국문학연>과<문학강연회>등이 되살려놓을일이다。아울러<동국문학>지의 속간도 어떤 경로를 밟든지 실현되어야할 과제다。이런것들이 학생개개인의 문학적 자질과 역량을 고무시키고 충동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문학적인 분위기만 조장하여 문학을 돛피우던 시절은 아니라고 시침만 뗄 일이 아니다。그런 행사를 치르는 사이에 문학은 두르익는 법이다。

그나마 기념비적인<동악선생시단>의 액각도 교정에 되살리고, 동국문학의 한 터전이 되었던<사사로>의 환경조성도 좀더 고즈넉하게 되살려야 했다。이런 사소한 주변부터 문학적 관심을 고조시켜 나가고 보면 학생들의침체된 문학의욕이 불붙게 될것이다。그렇다면, 문학이 제아무리 동국의 흔들릴수없는 전통이라한들 온통 문학으로 휘갑두를 수 없지 않느냐는 반발도 있음직하다。또한 동국문학이 창작에 국한되는걸로만 치부하고, 차분하게 문학을 학문적연구의 자세로접근하는 태도가 위축되리라는 염려도 있을수 있겠다。

허나 창작문학이 왕성해지면 그만큼 문학의 학문적 연구도 상승적인 효과로 흥동되어질 것을 믿는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이런 여건들이 부족함없이 충당된다 해도 결국 그것을 십분 수용하여 자기의 문학작업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른 것이다。

오늘날 문학의 해석은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추세에 호응할 수 있는 가열한 실험정신과 연계된 학문과 타예술과의 부단한 교신으로 새로운문학을 세우는 곳에 동국문학의전통은 새롭게 일신될 것이다。

81년에 걸친 동국문학의 금자탑은 바야흐로 피사의 사탑이 되려는가。행사때마다 들먹이는 격려사나 축사의 한귀절로 화석화할 것인가。손쉬운 얘기로 전통은 지나간 것에 고여있는게 아니라 다가올 것에 스며있는 것임을 명심할 일이다。동국문학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는 신념으로 선배는 선배끼리, 후배는 또 그들끼리, 때로는 선후배 함께 매진해보자。

동국문학의 전통은 오늘날에 빛이 되고 있는가

"오늘날 문학이 밀실의 고독한 행위라는 고집으로 주위로부터 짐짓 격리되고자 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1년 동국대학교 개교81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삼보사)
은평포교원
원장 윤지원
대중일동

영화사
주지 최도원
대중일동

삼성암
주지 박세민
대중일동

삼선승가학원
삼선포교원
원장 지광
대중일동

옥수동
미타사
주지 최창일
대중일동

원각사
주지 김광명
대중일동

달마사
주지 권법능
대중일동

자비원
주지 박삼중
대중일동

삼각산
운문사
주지 정운문
대중일동

청룡암
주지 김법현
대중일동

(무순)

노동자의 주체적 인식과 참여가

産業災害 해결의 열쇠이다

張鍾澤
〈㈜ 도서출판당·편집차장〉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실태

Ⅰ. 시작하는 말

오늘날의 숱한 산업재해 (이하 산재)는 기본적으로 산업 기술의 근대적 발전에 기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상업구조의 필연적 산물이기도 하다. 즉 최대 이윤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강도의 강화 등에 투자되는 비용은 1차적인 것이지만 설비투자 등에 의한 불변자본의 확충은 2차적인 것으로 되며, 이에 따른 노동조건의 낙후성, 안전설비의 미비 등은 노동자들의 과로, 미숙련, 심리적 불만등의 상황과 함께 직접적인 산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 통계를 보면 근대적 공업화와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60년대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재의 발생상황은 끊임없이 매년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85년도의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협 (이하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 6만6천8백3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4백49만5천1백85명중에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 수는 14만1천8백9명이며, 이로 인한 결제적 손실액은 약9천3백억원으로 GNP의 1·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도 보고된 것들에 한하는 것임을 생각할때 실제로 미보고되거나 보상되지 않은 산재 발생 건수및 재해자수는 이를 훨씬 상회한것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발생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8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발생 재해건수에서 10·4%, 재해자 수에서 10·1%씩 각각 감소되었지만 이는 정부의 각종 재해 예방 노력의 결과보다는 국내 경기침체와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국내경기의 둔화에서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85년도를 제외하면 산재는 그동안 매년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근원적인 재해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각종 산업의 공정 다원화·복잡화와 함께 유해물질의 취급업종·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광공업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직업병에 관한 관심이 섬유산업을 비롯한 제타산업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산재 발생의 현황과 각종 직업병의 실태, 그 발생원인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양성화된 전문연구기관이 적고 연구성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부의 1차적 통계자료에만 의거한다는 사실이다.

Ⅱ. 산업재해의 현황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대로 85년도의 재해자 수는 14만1천8백9명인데 이를 재해 정도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자는 1천7백18명으로 전체 재해자 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천6백67명)에 비해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재해자 수의 14%를 차지하는 신체장해자 (완전및 부분 근로불능자·장해등급 1급~14급 해당)는 84년도의 1만6천6백55명보다 19% 증가한 1만9천8백24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수는 12만2백67명으로 이는 전년도의 13만9천4백78명보다 13·8%감소한 숫자인데 사망자와 신체 장해자수의 증가현상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85년의 전체 재해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적어짐에 따라 당연히 재해율 (재해자 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에도 불구하고 실제 84년과 비교할 때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 증가한 데 반해 적용 근로자수는 2·5% 증가한 점, 재해자수의 절대수가 그 실각성이 보다 덜한 부상자 (전체 재해자 수의 84·8%)라는 점, 사망자와 더불어 신체장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된 점 특히 신체 장해자 중에서도 완전 노동 불능자 (신체 장해 등급 1급~3급 해당)가 4백96명으로 (0·7%)을 기록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해마다 그 수위 (順位)가 바뀔 정도로 이들 두 산업에서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50·0% 이상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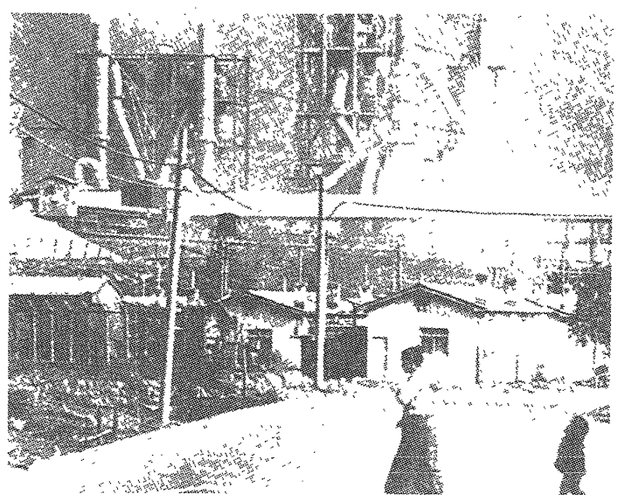
신체 장해자 수와 부상자 수의 경우도 제조업, 건설업, 광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재해자 수의 증감만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더 정확히 분석·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해 관련 지수를 사용한다.

즉, 1천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천인율 (千人率=재해자 수÷전용 근로자 수×1000)과 1백만 노동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 (度數率=재해 발생 건수÷연 노동시간 수×100만), 그리고 1000노동시간당 재해로 인한 노동 손실일 수로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 (强度率=노동 손실일 수÷연 노동시간 수×1,000)로 표시하는 것이다.

85년도의 산업별 재해 현황을 재해 지수별로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띠는 분야는 광업이다.

광업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강도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도율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



절을 하는 산업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직업병은 불을듯 날 발병을에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 산업별 재해현황

85년도의 재해 발생현황을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철강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에서 전체 재해의 56·5%인 8만1백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3만3천6백91명(23·8%), 운수·보관·통신업이 1만5천3백71명 (9·4%), 광업이 1만5백46명 (7·4%), 기타 산업이 3천7백84명(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84년도의 3백61명보다 무려 37·4% 증가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단순 비교를 통한 재해율 감소의 낙관보다는 오히려 재해건당 그 규모(정도)의 심각성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산업별 재해현황

85년도의 재해 발생현황을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철강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에서 전체 재해의 56·5%인 8만1백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3만3천6백91명(23·8%), 운수·보관·통신업이 1만5천3백71명 (9·4%), 광업이 1만5백46명 (7·4%), 기타 산업이 3천7백84명(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작업자인 노동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해는 전체 재해 중 80%를 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분석의 틀을 달리한다면 위에서 분석한 재해 원인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요인들에 불과하며 또다른 시각에서 구조적 발생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과다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로이다. 노동자가 피로하면 동작이 완만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며 이는 곧바로 산재의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피로를 높이고 결국 산재 발생의 가장 주요한 토양이 된다고 할수있다.

둘째, 불안전한 생산수단을 들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가 부주의하도 생산수단이 안전한 것이라면 조업의 일시 정지·지연·중단 상태는 있어도 상해 사고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주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방지하기위한 투자보다는 눈앞의 생산성 향상을위한 투자에 더욱 신경을 쓴다.

셋째, 열악에 따른 노동자의 미숙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경험이나 전문 기술 (지식) 부족이 1차적인 것이지만 또다른 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일률, 부당한 처우등에 의한 높은 이직율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부족 노동자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열부 배치 등의 노동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재해 요인으로 되는 노동자의 미숙은 전적으로 노동자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 노동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하다.

네째 노동자들의 생활과 심리적 측면에서 산재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인간 경시 풍조,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인식 부족등 여러요인이 있을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에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85년의 경우 충족된 대상 사업장 3만9, 340개소의 근로자 269만2, 279명중 3만5335개 사업장의 근로자 253만8, 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1만5, 052명의 질병자가 발견되어 4·53%의 직업병 이환율 (질병자 수/검진 근로자수×100)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6노동통계연감P.339). 그러나 질병하는 산업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직업병은 그 범용수나 발병률에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문제는 대부분의 직업병이 만성적 질병으로 나타남으로써 조기발견이 어렵을 뿐만아니라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파악되고있는 직업병으로는 진폐 (塵肺)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로 인한 신경염 (神經炎) 유기용제의 중독, 납중독, 크롬중독, 피부염, 고열관련 등이 있으며 새롭운 공법, 화학물질의 제조 및 상용증가로 인한 키폰치병, 직업성 알레이 새로운 직업성 질병으로 주시되고있다.

진폐증은 광산 노동자와 섬유업계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질병으로 분진의 종류에 따라 탄폐증 (炭肺症) 규폐증 (硅肺症) 면폐증 (綿肺症) 으로 분류되는데 현대의 의학으로서도 치유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84년말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5년4월 동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보완조치된 점만보더라도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짐작할수있다.

85년의 진폐증 환자는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의 반수 이상인 54·6%로 3천7백76명을 나타냈으며 재해자 수에서 1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해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광업은 전체 재해자 1만5백46명중 낙하 비래 2천4백7명, 협착 1천6백88명, 무리한동작 1천6백83명 순이며, 제조업에서는 협착, 무리한 동작, 추돌등의 재해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추락, 무리한 동작, 낙하, 비래, 협착 순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볼때 재해의 형태는 업종별 업무내용및 설비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원인별로 재해현황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주시해야 할것은 각 산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의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따라서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개별적이든 복합적인 요인이든 간에 원인분석을 위한 관점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분석의 시각적차이에 의해 발생 재해원인은 크게 달리 표현될수 있으며 나아가 재해를 방지하고자하는 노력과 방법의 차이까지 결과할수 있다는 말이다.

85년의 재해자 14만1천8백9명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있는데, 재해자 수의 14%를 차지하는 신체장해자 (완전및 부분 근로불능자·장해등급 1급~14급 해당)는 84년도의 1만6천6백55명보다 19% 증가한 1만9천8백24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수는 12만2백67명으로 이는 전년도의 13만9천4백78명보다 13·8%감소한 숫자인데 사망자와 신체 장해자수의 증가현상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85년의 전체 재해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적어짐에 따라 당연히 재해율 (재해자 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에도 불구하고 실제 84년과 비교할 때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 증가한 데 반해 적용 근로자수는 2·5% 증가한 점, 재해자수의 절대수가 그 실각성이 보다 덜한 부상자 (전체 재해자 수의 84·8%)라는 점, 사망자와 더불어 신체장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된 점 특히 신체 장해자 중에서도 완전 노동 불능자 (신체 장해 등급 1급~3급 해당)가 4백96명으로 (0·7%)을 기록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해마다 그 수위 (順位)가 바뀔 정도로 이들 두 산업에서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50·0% 이상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체 장해자 수와 부상자 수의 경우도 제조업, 건설업, 광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재해자 수의 증감만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더 정확히 분석·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해 관련 지수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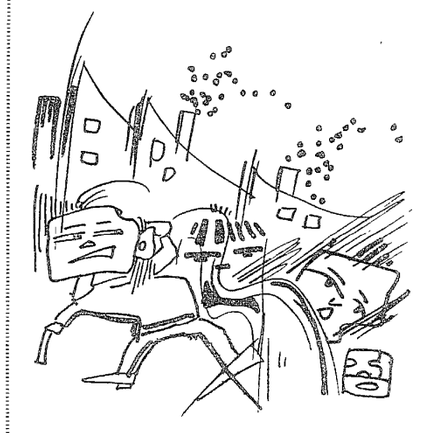
즉, 1천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천인율 (千人率=재해자 수÷전용 근로자 수×1000)과 1백만 노동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 (度數率=재해 발생 건수÷연 노동시간 수×1,000,000)로 표시하는 것이다.

85년도의 산업별 재해 현황을 재해 지수별로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띠는 분야는 광업이다.

광업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강도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도율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

직업병…만성적이고 완치도 불가능

제조·건설업의 사망자수는 전체의 50% 이상



産災…자본주의 산업구조의 필연적 산물

최대의 윤리적 문제는 노동조건이 문제

Ⅲ. 직업병의 실태와 문제점

직업병이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직업에 따른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직업병은 특별한 사고나 재해가 없어도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병이란 전산업 평균치의 9배이상 노동자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며 이에 관한 안전대책이 얼마나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1. 형태별·원인별 재해현황

발생한 재해의 형태는 열중증·직무별로 다양한 것이며 원인 역시 직·간접적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발생 재해에 관하여 나타난 외견별·유형별로 분류한 노동부 자료를 원용하기로 한다.

85년의 총재해자 수 14만1천8백9명을 재해 형태별로 볼때 발생한 재해자 수 (2만8천8백16명)가 가장 많으며 (전체 재해의 20·3%) 다음으로 협착 (挾搾=물건, 기계등의 틈에 끼이거나 말려듦) 에의한 재해자가 2만5천8백9명 (18·2%), 낙하·비래 (물건, 기계, 부품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다침) 가 1만6천3백93명 (11·6%), 충돌 1만5천9백39명 (11·2%), 추락 1만3천3백73명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해 형태를 산업별로 보면, 광업은 전체 재해자 1만5백46명중 낙하 비래 2천4백7명, 협착 1천6백88명, 무리한동작 1천6백83명 순이며, 제조업에서는 협착, 무리한 동작, 충돌등의 재해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추락, 무리한 동작, 낙하, 비래, 협착 순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볼때 재해의 형태는 업종별 업무내용및 설비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원인별로 재해현황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주시해야 할것은 각 산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의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따라서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개별적이든 복합적인 요인이든 간에 원인분석을 위한 관점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분석의 시각적차이에 의해 발생 재해원인은 크게 달리 표현될수 있으며 나아가 재해를 방지하고자하는 노력과 방법의 차이까지 결과할수 있다는 말이다.

85년의 재해자 14만1천8백9명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있는데, 재해자 수의 14%를 차지하는 신체장해자 (완전및 부분 근로불능자·장해등급 1급~14급 해당)는 84년도의 1만6천6백55명보다 19% 증가한 1만9천8백24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수는 12만2백67명으로 이는 전년도의 13만9천4백78명보다 13·8%감소한 숫자인데 사망자와 신체 장해자수의 증가현상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85년의 전체 재해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적어짐에 따라 당연히 재해율 (재해자 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에도 불구하고 실제 84년과 비교할 때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 증가한 데 반해 적용 근로자수는 2·5% 증가한 점, 재해자수의 절대수가 그 실각성이 보다 덜한 부상자 (전체 재해자 수의 84·8%)라는 점, 사망자와 더불어 신체장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된 점 특히 신체 장해자 중에서도 완전 노동 불능자 (신체 장해 등급 1급~3급 해당)가 4백96명으로 (0·7%)을 기록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해마다 그 수위 (順位)가 바뀔 정도로 이들 두 산업에서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50·0% 이상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체 장해자 수와 부상자 수의 경우도 제조업, 건설업, 광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재해자 수의 증감만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더 정확히 분석·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해 관련 지수를 사용한다.

즉, 1천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천인율 (千人率=재해자 수÷전용 근로자 수×1000)과 1백만 노동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 (度數率=재해 발생 건수÷연 노동시간 수×1,000,000)로 표시하는 것이다.

85년도의 산업별 재해 현황을 재해 지수별로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띠는 분야는 광업이다.

광업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강도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도율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

절을 하는 산업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직업병은 불을듯 날 발병을에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 산업별 재해현황

85년도의 재해 발생현황을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철강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에서 전체 재해의 56·5%인 8만1백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3만3천6백91명(23·8%), 운수·보관·통신업이 1만5천3백71명 (9·4%), 광업이 1만5백46명 (7·4%), 기타 산업이 3천7백84명(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84년도의 3백61명보다 무려 37·4% 증가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단순 비교를 통한 재해율 감소의 낙관보다는 오히려 재해건당 그 규모(정도)의 심각성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산업별 재해현황

85년도의 재해 발생현황을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철강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에서 전체 재해의 56·5%인 8만1백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3만3천6백91명(23·8%), 운수·보관·통신업이 1만5천3백71명 (9·4%), 광업이 1만5백46명 (7·4%), 기타 산업이 3천7백84명(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작업자인 노동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해는 전체 재해 중 80%를 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분석의 틀을 달리한다면 위에서 분석한 재해 원인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요인들에 불과하며 또다른 시각에서 구조적 발생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과다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로이다. 노동자가 피로하면 동작이 완만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며 이는 곧바로 산재의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피로를 높이고 결국 산재 발생의 가장 주요한 토양이 된다고 할수있다.

둘째, 불안전한 생산수단을 들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가 부주의하도 생산수단이 안전한 것이라면 조업의 일시 정지·지연·중단 상태는 있어도 상해 사고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주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방지하기위한 투자보다는 눈앞의 생산성 향상을위한 투자에 더욱 신경을 쓴다.

셋째, 열악에 따른 노동자의 미숙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경험이나 전문 기술 (지식) 부족이 1차적인 것이지만 또다른 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일률, 부당한 처우등에 의한 높은 이직율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부족 노동자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열부 배치 등의 노동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재해 요인으로 되는 노동자의 미숙은 전적으로 노동자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 노동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하다.

네째 노동자들의 생활과 심리적 측면에서 산재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인간 경시 풍조,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인식 부족등 여러요인이 있을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에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85년의 경우 충족된 대상 사업장 3만9, 340개소의 근로자 269만2, 279명중 3만5335개 사업장의 근로자 253만8, 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1만5, 052명의 질병자가 발견되어 4·53%의 직업병 이환율 (질병자 수/검진 근로자수×100)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6노동통계연감P.339). 그러나 질병하는 산업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직업병은 그 범용수나 발병률에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문제는 대부분의 직업병이 만성적 질병으로 나타남으로써 조기발견이 어렵을 뿐만아니라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파악되고있는 직업병으로는 진폐 (塵肺)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로 인한 신경염 (神經炎) 유기용제의 중독, 납중독, 크롬중독, 피부염, 고열관련 등이 있으며 새롭운 공법, 화학물질의 제조 및 상용증가로 인한 키폰치병, 직업성 알레이 새로운 직업성 질병으로 주시되고있다.

진폐증은 광산 노동자와 섬유업계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질병으로 분진의 종류에 따라 탄폐증 (炭肺症) 규폐증 (硅肺症) 면폐증 (綿肺症) 으로 분류되는데 현대의 의학으로서도 치유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84년말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5년4월 동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보완조치된 점만보더라도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짐작할수있다.

85년의 진폐증 환자는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의 반수 이상인 54·6%로 3천7백76명을 나타냈으며 재해자 수에서 1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해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광업은 전체 재해자 1만5백46명중 낙하 비래 2천4백7명, 협착 1천6백88명, 무리한동작 1천6백83명 순이며, 제조업에서는 협착, 무리한 동작, 충돌등의 재해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추락, 무리한 동작, 낙하, 비래, 협착 순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볼때 재해의 형태는 업종별 업무내용및 설비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원인별로 재해현황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주시해야 할것은 각 산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의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따라서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개별적이든 복합적인 요인이든 간에 원인분석을 위한 관점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분석의 시각적차이에 의해 발생 재해원인은 크게 달리 표현될수 있으며 나아가 재해를 방지하고자하는 노력과 방법의 차이까지 결과할수 있다는 말이다.

85년의 재해자 14만1천8백9명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있는데, 재해자 수의 14%를 차지하는 신체장해자 (완전및 부분 근로불능자·장해등급 1급~14급 해당)는 84년도의 1만6천6백55명보다 19% 증가한 1만9천8백24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수는 12만2백67명으로 이는 전년도의 13만9천4백78명보다 13·8%감소한 숫자인데 사망자와 신체 장해자수의 증가현상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85년의 전체 재해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적어짐에 따라 당연히 재해율 (재해자 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에도 불구하고 실제 84년과 비교할 때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 증가한 데 반해 적용 근로자수는 2·5% 증가한 점, 재해자수의 절대수가 그 실각성이 보다 덜한 부상자 (전체 재해자 수의 84·8%)라는 점, 사망자와 더불어 신체장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된 점 특히 신체 장해자 중에서도 완전 노동 불능자 (신체 장해 등급 1급~3급 해당)가 4백96명으로 (0·7%)을 기록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해마다 그 수위 (順位)가 바뀔 정도로 이들 두 산업에서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50·0% 이상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체 장해자 수와 부상자 수의 경우도 제조업, 건설업, 광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재해자 수의 증감만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더 정확히 분석·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해 관련 지수를 사용한다.

즉, 1천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천인율 (千人率=재해자 수÷전용 근로자 수×1000)과 1백만 노동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 (度數率=재해 발생 건수÷연 노동시간 수×1,000,000)로 표시하는 것이다.

85년도의 산업별 재해 현황을 재해 지수별로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띠는 분야는 광업이다.

광업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강도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도율은 천인율에 있어서나 도수율에 있어서 전 산업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인율의 경우는 전산업의 평균치보다 3·2배가 넘는 지수로서 이는 근로자 10명중 1·2명꼴로 재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강

절을 하는 산업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직업병은 불을듯 날 발병을에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 산업별 재해현황

85년도의 재해 발생현황을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철강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에서 전체 재해의 56·5%인 8만1백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3만3천6백91명(23·8%), 운수·보관·통신업이 1만5천3백71명 (9·4%), 광업이 1만5백46명 (7·4%), 기타 산업이 3천7백84명(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84년도의 3백61명보다 무려 37·4% 증가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단순 비교를 통한 재해율 감소의 낙관보다는 오히려 재해건당 그 규모(정도)의 심각성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산업별 재해현황

85년도의 재해 발생현황을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철강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에서 전체 재해의 56·5%인 8만1백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3만3천6백91명(23·8%), 운수·보관·통신업이 1만5천3백71명 (9·4%), 광업이 1만5백46명 (7·4%), 기타 산업이 3천7백84명(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작업자인 노동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해는 전체 재해 중 80%를 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분석의 틀을 달리한다면 위에서 분석한 재해 원인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요인들에 불과하며 또다른 시각에서 구조적 발생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과다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로이다. 노동자가 피로하면 동작이 완만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며 이는 곧바로 산재의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피로를 높이고 결국 산재 발생의 가장 주요한 토양이 된다고 할수있다.

둘째, 불안전한 생산수단을 들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가 부주의하도 생산수단이 안전한 것이라면 조업의 일시 정지·지연·중단 상태는 있어도 상해 사고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주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방지하기위한 투자보다는 눈앞의 생산성 향상을위한 투자에 더욱 신경을 쓴다.

셋째, 열악에 따른 노동자의 미숙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경험이나 전문 기술 (지식) 부족이 1차적인 것이지만 또다른 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일률, 부당한 처우등에 의한 높은 이직율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부족 노동자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열부 배치 등의 노동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재해 요인으로 되는 노동자의 미숙은 전적으로 노동자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 노동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하다.

네째 노동자들의 생활과 심리적 측면에서 산재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인간 경시 풍조,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인식 부족등 여러요인이 있을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에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85년의 경우 충족된 대상 사업장 3만9, 340개소의 근로자 269만2, 279명중 3만5335개 사업장의 근로자 253만8, 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1만5, 052명의 질병자가 발견되어 4·53%의 직업병 이환율 (질병자 수/검진 근로자수×100)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6노동통계연감P.339). 그러나 질병하는 산업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직업병은 그 범용수나 발병률에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문제는 대부분의 직업병이 만성적 질병으로 나타남으로써 조기발견이 어렵을 뿐만아니라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파악되고있는 직업병으로는 진폐 (塵肺)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로 인한 신경염 (神經炎) 유기용제의 중독, 납중독, 크롬중독, 피부염, 고열관련 등이 있으며 새롭운 공법, 화학물질의 제조 및 상용증가로 인한 키폰치병, 직업성 알레이 새로운 직업성 질병으로 주시되고있다.

진폐증은 광산 노동자와 섬유업계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질병으로 분진의 종류에 따라 탄폐증 (炭肺症) 규폐증 (硅肺症) 면폐증 (綿肺症) 으로 분류되는데 현대의 의학으로서도 치유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84년말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5년4월 동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보완조치된 점만보더라도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짐작할수있다.

85년의 진폐증 환자는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의 반수 이상인 54·6%로 3천7백76명을 나타냈으며 재

직업병의 실태와 문제점

Ⅲ. 직업병의 실태와 문제점

직업병이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직업에 따른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직업병은 특별한 사고나 재해가 없어도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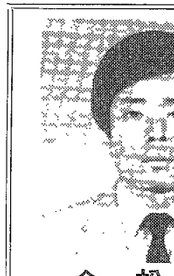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에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85년의 경우 충족된 대상 사업장 3만9, 340개소의 근로자 269만2, 279명중 3만5335개 사업장의 근로자 253만8, 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1만5, 052명의 질병자가 발견되어 4·53%의 직업병 이환율 (질병자 수/검진 근로자수×100)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6노동통계연감P.339). 그러나 질병하는 산업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직업병은 그 범용수나 발병률에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문제는 대부분의 직업병이 만성적 질병으로 나타남으로써 조기발견이 어렵을 뿐만아니라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파악되고있는 직업병으로는 진폐 (塵肺)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로 인한 신경염 (神經炎) 유기용제의 중독, 납중독, 크롬중독, 피부염, 고열관련 등이 있으며 새롭운 공법, 화학물질의 제조 및 상용증가로 인한 키폰치병, 직업성 알레이 새로운 직업성 질병으로 주시되고있다.

진폐증은 광산 노동자와 섬유업계 노동자들에게서

"서서선생님, 마아악 뛰뛰고 시시픈데 주중심이 아안잡혀요"

"나도 해낼수 있어요"



金 松 石
<삼육재활학교 교사>

장애자 하면 돈과 연결짓거나 동정일변도의 시선으로 보려는것이 일반인의 의식이다。本紙에서는 직접 장애자를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있는 김송석교사의 수기를 통하여 장애자와 공감대형성의 場을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병신 육갑한다는 소리로 들으며 북한강 거센 물줄기를 헤쳐 올라가던 일, 추어진 임무를 위하여 안간힘을 썼던 일, 그러나 이런 시도들도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지는 못했다

어천구니가 없었다。정상인도 대학4년간의 생활은 그리 만만치가 않은데 하물며 단 한 치의 앞도 못보는 맹인의 장애를 지닌고도 벚벚이 대학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던 한 젊은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지고 말았다。

3년전 늦가을 한 지체장애자가 스스로 35년의 삶을 버렸다。부인과 다섯살박이 아들을 남기채 그는 이런 호소문을 써놨다。『왜 저희는 간눈뜻마다 돌아서야 합니까?왜 목을 추길 한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왜 건널목을 건널때마다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울을 호소해야 합니까』

평범한 삶을 요구한다。장애자들을 장애자로 똑바로 보지 못한다。장애자문제 하면 돈으로 연결짓거나 동정 일변도의 시선으로 보려는 경멸이 숨어있다。그리고 그런 독소 섞인 눈초리가 이들의 아픔을 더욱 깊게한다。

우리 장애자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현실」이란는 사실을 항상 잊어선는 안된다。신체적 장애는 눈령의 장애가 아니라는 표어가 있지만 아픔은 본인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장애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모른다。

우리 장애자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현실」이란는 사실을 항상 잊어선는 안된다。신체적 장애는 눈령의 장애가 아니라 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울을 호소해야 합니까』

평범한 삶을 요구한다。장애자들을 장애자로 똑바로 보지 못한다。장애자문제 하면 돈으로 연결짓거나 동정 일변도의 시선으로 보려는 경멸이 숨어있다。그리고 그런 독소 섞인 눈초리가 이들의 아픔을 더욱 깊게한

민간주도의 통일논의 분석

통일문제의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통일논의는 집권층의 정권유지 수단 될 수없어

본지에서는 분단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도 민족통일의 문제가 절실한 민족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통일논의들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보고 이러한 통일논의들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과 가능성을 찾아 이를 수용하며 부정적인면과 비현실성을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민족통일논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한다. 【편집자註】

1、머리말

분단상황하의 민족 대다수는 통일논의를 통해서 표출되는 실천의지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민족적 통일의지와 냉엄한 분단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권담당세력 주도하의 통일논의를 제약하고는 그 논의조차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민족통일의 실천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지도 못한채 분단 40여년에 이르고있다.

그럴수록 민간차원에서의 통일논의가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다. 분단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냉혹한 현실속에서도 강인한 민족의지는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났었다.

이 글에서는 분단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도 민족통일의 문제가 절실한 민족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통일논의들의 냉엄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학술한 통일논의들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과 가능성을 찾아 이를 수용하고 부정적인 지양하므로서 앞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논의의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前 高大「통일연구소」연구원〉 盧 重 善

2、이승만정권 아래의 평화통일논의

이승만정권은 대외적으로는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국내에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여타의 통일논의를 용납치 않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제헌국회의 소장파 의원들이 1949년 4월 『남북협상에 의한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주장하였지만 이른바 「국회푸락치 사건」으로 투옥되고 말았다.

그리고 1952년 8월 당시 대통령후보 이승만은 정견발표를 통해 『남북정전회담을 성공시키고 국군과 인민군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민족평화군을 창건한다. 평화민족통일국가를 건립하고 남북을 통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1955년2월 김남중(당시 서울대 학생)은 『남북의 현존하는 정권의 하에서 통일독립정부수립은 불가능하다. 통일독립청년학생총연맹 결성준비위원회』를 세워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남북을 통일하고 남북의 통치로부터 독립한 일정연합이하의 청년들과 미성년자들만으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통일독립청년공동체수립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하였다.

또한 진보당은 『반드시 우리민족은 통일되어야하고 이 통일은 전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56년 11월 창당대회 강령에서 『①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의 국회를 협성하기위하여 자유선거를 시행한다. ②이 선거의 준비와 실시를 감독하고 감시하기위하여 국제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인도, 스위스 체코대표로 구성하고 인도대표가 의장이되어야 한다. ③선거를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북한당국에 자주 · 평화 ·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정권은 1960년 9월 발기결의에서 자주 · 평화 ·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3대원칙 실천방안으로 ①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 ②남북민족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전국최고위원회 구성 ③외세배격④통일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 회담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실천행동으로서는 ①남북회담 지지 ②남북정권기관및정당 · 사회단체는 남북협상을 준비할것 ③남북간의 서신, 문화, 인사교류의 조속실현 ④남북경제교류 단행 ⑤남북체육대회의 조속개최 ⑥민족통일을방해하는 어떠한 외세일지라도 이땅에서 하루빨리 퇴거하라는등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1960년 9월 발기결의에서 자주 · 평화 · 민주의 3대원칙 실천방안으로 「남북연방제」를 주장하였던 민주당은 『남북한자주총선을 통한 영세중립화통일』을 원칙으로 한다. 영세중립은 국제회의에서 합의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외에도 혁신계 정당들은 공식입장이나 실천강령 그리고 사견들이 남발하여 복잡하고 애매한 양상을 띠었는데 이들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의 집결체인 「민자통」이 결성되면서 혁신계의 통일논의가 집약적으로 발표되었다.

민자통은 1960년 9월 「남북한 학생 · 문화 · 체육인 등의 자유로운 상호방문과 남북한 학생 · 문화 · 체육인 등의 올림픽 · 아시안게임 · 월드컵 · 세계탁구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공동참가 등

民衆의 입장에서 통일논의 진행돼야

민중적 관점에서 분단고착화 연구돼야

남한은 민족모순이 계급모순화된 사회

민간중심의 통일논의는 통일 주체와 방법 제시 못해

현재는 통일의 과학적 실천위한 과도기

왜곡된 정치교육은 민족통일의 방해요인

국민주도의 통일위한 정치민주화 요구돼

◇통일은 왜 필요한가

지난82년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던 정권주도하의 통일논의가 부산된 이래 분단의 고착화는 외적인 한반도 국제정세 뿐만아니라 냉전으로 두개의 정치·경제·문화체제로 고정화 되어가면서 일반민중들에게도 실질적인 통일 실현의 불가능성에 동조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일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서는 것은 분단은 「남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지역적으로 대립하는 체제간 모순」이라는 측면과 함께 외세로부터의 자주성의 문제인 민족모순의 성격을 띄고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결코 단순히 「체제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하며 분단의 민족모순적 성격의 인식속에서 정권의 정책적 차원이나 관념적 통일논의가 아닌 과학적인 통일논의와 올바른 실천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점은 현재 분단 42년을 맞이하면서 민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희의의 증가와 이에 대한 동조같이 증가하는 경향속에서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사회적 인식등의 변화를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통일이 우리에게 3가지로 나눌수 있겠다.

첫째, 분단은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경제등 사회 전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피력과 이의 결집을 어렵게만들며 계속적으로 정치권력이 비대화하고 비민주적 요소가 확대·재생산되어가는 것으로 작용한다.

둘째, 분단은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식민지 경제가 편파한 경제구조의 파행성을 심화시켜 식민지 유제의 비청산과 대의 의존도의 심화라는 파행적 경제 구조를 만들었고 군사비 지출등의 비효율인 지출에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세째, 분단은 민족의 의식에 반각한다면 한민족의 통일은 필수적이고 절실한것이다.

南北韓家族의 離散을 겪고있는 동포가 후손까지하여 1천만정도, 국방비지출이 1983년에만도 약70억불, 그리고 1백40만의 노동인력이 軍으로 빼앗기고있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방과 한민족의 위신실추, 상호위기 정부체제로서의 정치적 낙후성, 그리고 가장 통탄할것은 이모든 것들이 통일로 결합될때 갖을수 있는 한민족 번영의 가속도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 이상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말이 허상으로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 統一의 장애요인으로서 논의되는것을 크게 나누어보면 국제강대국간의 이해관계, 남북한지도층의 이해대립, 그리고 남북한국민간의 상호불신으로 볼 수있다. 국제적으로는 美·日·中·蘇 4강대국이 너무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현상유지를 원하기에 南北의 분단은 그들의 의지에의해 거의 고정화된 것이고 남북한지도층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바탕으로 흑수통일하려 하는가 위기감을 조성해 하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관주도 통일 정책의 허구성

분단의 원인,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통일에 대한 인식과 방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필 때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 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속에 신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그초과 이윤을 실현하고자 하는 외세와 국내에서의 자본의 이윤을 실현하는 국내자본등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하는 세력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논의 그리고 80년대 이후 민중적 시각에 통일을바라보려고 하는 사회 민족화운동권으로나누어진다.

분단의 원인,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통일에 대한 인식과 방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필 때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 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속에 신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그초과 이윤을 실현하고자 하는 외세와 국내에서의 자본의 이윤을 실현하는 국내자본등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하는 세력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논의 그리고 80년대 이후 민중적 시각에 통일을바라보려고 하는 사회 민족화운동권으로나누어진다.

◇관주도 통일 정책의 허구성

분단의 원인,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통일에 대한 인식과 방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필 때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 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속에 신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그초과 이윤을 실현하고자 하는 외세와 국내에서의 자본의 이윤을 실현하는 국내자본등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하는 세력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논의 그리고 80년대 이후 민중적 시각에 통일을바라보려고 하는 사회 민족화운동권으로나누어진다.

관주도의 통일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단정수립후 제5 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통일논의 취약점 성격이나, 통일정책이 정권의 부분을 한당화시키기위한 수단으로서 전개되어 왔다고 할수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정권시대의 「북진 무력통일론」이나 60년대말까지의 「선건설·후통일정책」등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치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었고, 70년대이후는 미·중·소·일등 4대강국의 자국 이익실현을위한 화해분위기속에서 분단 고착화정책에 편승한 「통일정책」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단지 정책상의 변화를살피면 76년대를 전후로 하여 통일정책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겠으나 70년대를 전후로 북한의 국가로서 인정하려는 부분적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관주도의 통일정책은 책은 아직까지도 민간차원에서 일 논의조차 미진하여 사회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상황속에서 분단의 고정화로 귀착되어질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교차승인은 서로간의 현재 체제강화라는 성격을 띄며 이는 분단을 원치 않는 세력의 계속적인 재생산을 해결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차원 통일논의의 한계

이상의 관주도의 통일정책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민간차원에서 지식인등의 소시민계층에 의해 주장되는것이 민족주의통일론으로써 이는 대체로 종립화 통일론과 선민주화 후통일론등의 방식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차원에서의 통일론은 현재와같은 2개의체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극심한 대립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상과같이 분단이 극복되어야하는 현실적인 시급한과제 외에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문제와 체제간 이데올로기 대립의 긴장완화에도 기여할수 있다라는 점들은 바로 현재 통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80년대 이후의 과학적 통일논의

70년대이후 사회 민족화 운동권 세력들을 반 독재투쟁의 실천적과 정책에서 모순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으로 발전·올바른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 노선을 갖기 시작하였고, 통일 문제 또한 단순히 민족간의 문제가 아닌 외세에 의한 분단이 극복되어야 하는 한반도의 통일논의 주체와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감상적 민족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남북통일만은 우리민족의 손과 힘으로 만들어야한다.』라는 등의 주장은 단지 당위론적 통일논의로 얻어졌어 일반대중들의 공감을 얻고는 있지만 통일 운동 선상에서 실천적으로 전개되지못하고있는 형편이다.

◇80년대

敎佛國韓 된리倒 된숙成 중민중의식관 괴리되

韓國佛敎의 諸문제

이념과 교리체계 정립이 당면과제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변혁 도모할 때

Ⅰ、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올해도 사월초파일은 어김없이 찾아왔다。거리마다 연등이 걸려 있으며 각사찰과 불교제단체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다채롭게 행사를 펼치고 있다。

문득 학교다닐때 연등만들고 등보시 하던 생각이 난다。손가락부터 개만한 종이몽치를 머리가 아프도록 후 불어 한참씩 떼낸후 끝을 말아 묶어 한웅큼 엮은 연꽃잎을 만든다。이렇게 만들어진 연꽃잎은 철사를 구부려 그위에 한장한장씩을 붙인 팔각형 모형의 상자에 가지런히 붙여 나간다。그러면 한폭이 삐죽 튀어나온것, 톨톨해 보이는것, 몸을고 균형이 잡혀 진짜 연꽃을 방불케 하는것 등 갖가지 연등이 된다。

붉은색、초록색、노란색들의 연등이 방안을 가득 메우면 휀지 가슴이 뿌듯해진다。초파일 전날이되면 오랜만에 오신 고참선배와 동료、후배들과 함께 행렬을지어 등불을 밝히고 절근과 찬불가 등을 부르며 산동네까지 행진한다。집결지에 도착하여서는 간단한 의식과 주의사항을 듣고 둘씩 짝을 지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등을 보시한다。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받는 사람을위해 오셨기에 이들과함께 「부처님 나심」을 기리고 경축한다는 의미에서…。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 나시자 방을 살펴보시고 사자처럼 말씀하셨다 『하늘 위、하늘 아래 오직 생명의 본성만이 홀로 존귀하도다』라고。이것은 그당시 인도라는 계급사회에서 출신성분(계급) 이나 무력、어떠한 신의 이름으로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인간존엄의 혁명적 선언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일생은 모든생명은 누구고 침범할수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비와 평등의 인간해방을 깨우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관되었다。

부처님이 오신 뜻과 일생은 이러할진대 오늘을 사는 우리 불교도는 어떻게 살고있는가。

작금의 민족적 현실과 민중의 생활 모습속에서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Ⅱ、民族의 現實과 佛敎의 役割

민족은 분단되어 40년이 지났고 만 통일의 길은 멀고、일제36년을 치렀지만 지냈지만 다시 미국에 예속된지 반세기가 가까와지고있다。

수출제일주의 정책으로 경제가 그런대로 발전되었다고 하나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정치는 진보는 커녕 계속 후퇴하여가고있다。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구조적 재해성이 절실한 사람과 수년 또는 그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마친자에 한해서만 성직자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교육실태는 어떠한가。20개 교단은 서로다른 경우가 많다。더구나 대다수의 불교인은 극락왕생과 운갓 복을 구하는 기복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불교도 아닌것이 이 불교의탈을 쓴 미신도 있다。

흔히 말하는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도 단순한 제경(諸經) 제론(諸論)의 복합 반복일 따름이고 경전의 시대적 재구성과 역사적 재해석

佛教儀式의 歷史와 思想性

"儀式은 신앙目的을 달성하는 方便"

佛家의 모든儀禮는 世尊에서 비롯

빈번한 佛事가 世俗化 초래

佛教用語의 우리말화가 선결과제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수가 있다. 종교의 역사는 의식의 역사라고 할만큼 원시사회에 있어서의 종교는 모든것이 의식이고 작법이므로 종교는 곧 의식이라고까지 보게되는 경우도 없지가 않다.

의식은 질서규율을 가진 종교적행위이다. 그러므로 신앙이 종교에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것이듯, 의식도 종교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수가있다. 종교의식의 일반적 특질을 성격면에서 본다면 신앙의식의 외적인 표출이며, 기능적인면에서 본다면 종교적대상과의 합일적 상징작용이라고 할것이다.

그와같은 일반종교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佛教儀式도 그와 비슷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印度에서 비롯된 佛教화 할께 그 신앙의례인 의식도 中國을 거쳐 이땅으로 전해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佛教儀式을 점검해 본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도 또한어려운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역사성및 그 사상성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한다.

오늘날의 불가의식은 그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종합하면서도 복잡한편이라고 할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의 제반의식은 모두가 근원을 세존에게서 찾아야할 것이라고본다. 아마도 불교의식의 가장 원초적인 연원은 세존 설불 직후의 법천권청 광경에서 볼수가 있다고 하겠다. 長阿含經에 보이고 있는 관계부분을옮겨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그때 법천왕이 毘婆尸如來의 뜻을 알고 梵天居으로부터 내려와서, 세존앞에 서고는 머리를 世尊의 발앞에 댈도록 절을 하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리하여 법천왕은 오른쪽 무릎을 땅에대고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世尊께 사뢰었다.

(時梵天王知毘婆尸如來所念…從梵天宮忽然來下 立於佛前頭面禮足却住一面 時梵天王右膝著地 叉手合掌白佛言…)

이때 법천왕은 자신의 청을 世尊께서 받아들였음을 알고 매우 기뻐하면서 世尊의 주위를 세번 돌고는 머리를 世尊 발에 댈도록 절을하고 물러갔다.

(爾時梵王知佛受請 歡喜踊躍遶佛三頭面禮足忽不現)

이 광경은돌론 과거毘婆尸佛의 옛일을 世尊께서 이야기하신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은 世尊 스스로의 일이기도 하다고 할수있다. 문제는 여기서 불교의식의 원초적 형태를 볼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梵天이 「世尊앞에 나아가 머리를 발에 댈도록 몸을 굽혀 절하고는 일어나 한 쪽으로 물러났다」(立於佛前 頭面禮足 却住一面)는것은, 禮佛의 기본형이라고 할수가 있다.

대승경전의 하나인 方廣大莊嚴經에 보이고 있는 바를 대표적인 보기로 들어 비교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처음 世尊이 成佛하여 諸天神으로부터 찬탄과 공양을 받았을때, 過光에서 와서 世尊에게 頂禮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돈다음 한쪽으로 물러서 世尊의 얼굴을 뵙고 합장하고 한 스님이 頌經을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대중은 「藥師瑠璃光佛」이라 창하고 도사가 「나부양사」라 하면 대중은 함께 「유리광불」이라 창한다. 도사가 「나무일체제불 보살 제대성중」이라 창하면 대중은 「南無一切諸佛 諸菩薩 諸大聲聞僧」이라 창한다. 이와같이 도사가 창하는 대로 대중은 따라 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淵源의 근원도 찾아볼수가 있다고 하겠다. 經說上에서 극히 몇가지를 대충 간략하게 보기로 들어보았는데, 십번 외운다. 한 스님이 頌經의 유래를 설명하면, 대중은 합장하고는 게송으로 청하였다.

그래도 역시 세존께서 응하지 않았으므로 梵王·帝釋등 모든 天衆은 돌아가버렸다.

대법천왕은 세번째 다시 세존 처소로 나아가 頭面禮足하고는 右膝著地하여 合掌恭敬 하여 게송으로 권청하였다. 이에 세존께서 그청을 수락하시자 대법천왕은 歡喜踊躍하여 頂禮佛足하고 세존 주위를 무수히 돈다음 부처님앞에서 물러 갔다는 것이다.

이 方廣大莊嚴經에는 世尊에게 공양하는 대목이 더 있을뿐만 아니라 앞의 阿含經說보다 훨씬 내용이 많고 자세하게 보이고 있다. 아함경에는 梵天이 처음 두번예속하고 却住一面하여 右膝著地하고는 차수하여 合掌白佛言하였으며, 세존이 청을 들어주자 歡喜踊躍하고 頭面禮足하고는 물러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大乘經에는 처음 권청하러 갔을때에도 頂禮佛足하고 것으로 되어있고 두번째와 세번째에도 똑같이 우요삼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나중에 世尊이 請許하자 頂禮佛足하고 요무수포하였다고 있다.

그리고 大莊嚴經에는 편단우순이 더 있고, 梵天이 세번씩이나 佛所에 가서 무릎을 땅에 꿇여 世尊을 향해 합장하고는 게송으로 청하였다.

그래도 역시 세존께서 응하지 않았으므로 梵王·帝釋등 모든 天衆은 돌아가버렸다.

대법천왕은 세번째 다시 세존 처소로 나아가 頭面禮足하고는 右膝著地하여 合掌恭敬 하여 게송으로 권청하였다. 이에 세존께서 그청을 수락하시자 대법천왕은 歡喜踊躍하고

현세와 해방에의 의지로 변혁운동 담당

굿

1

굿은 순수한 우리말이다。굿은 퉁구스어의 「kutu」, 몽고어의 「gutug」, 터키어의「gut」와 더불어 우랄—알타이어계에 속한"순수한 우리말이다。그 의미는 행복, 행운이다。따라서 굿은 행복이나 행운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의례(儀禮)라고 할수 있다。무의(巫儀)나 신사(神事) 등은 굿의 뜻을 한자로 번역한 용어에 불과하다。이 굿이라는 말속에는 오랜 세월 자연적 재해와 사회적 억압에 대항하며 생존해 온 한민족의 모든 애환이 절절하게 깃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굿은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개인굿과 공동체굿과 싸움굿(변혁굿)이 그것이다。개인굿은 원시공동체 사회로부터 오늘날의 자본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민간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의례행위라고 할수 있다。그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자그마한 기원의 몸짓이나 종열거림으로부터 사제의 무당에 의해 연출되는 무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있다。

이 개인굿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대부분 주술적 성향을 띠고 있다。

또 건강한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행복의 쟁취가 아니기 때문에 저급한 생산성이나 과학적 인식 미비의 반영이라고 비판된다。그러나 종교학에서 특히 개개인의 신앙형태를 주술·종교적 (magico-religious) 이라고 하듯이, 이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주술적 심성이나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역사속에서 언제나 사회변동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따라서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의 일방적 재단에 의한 비판이아니라 개인굿이나 그 굿을 하는 심성이 역사적 변동과정에서 지녔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굿에는 오랜세월 자연적재해와 사회적억압에 대항하며 생존해온 한민족의 모든 애환이 깃들어 있다。

3

둘째로 공동체굿은 일정한 단위 집단에 의한 의례 행위이다。그것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자연적 재해를 극복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소박한 주술적 심성이었으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는 축제요 의적과의 싸움에 대비하는 단련의 행위였을 것이다。그러나 고대사회 이후로 계급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굿은 복합적인 변화를 겪게된다。먼저 소위 공동체 자체가 지배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단위 집단 전체로서의 공동체와 피지배 계급만의 공동체로 분화된다。

전자에 의한 굿은 소위 국가의 이름 아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나라굿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것은 최고의 지배자가 제관이 되어 천지신령이나 사직에게 나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례행위이다。물론 나라의 이름을 빌린채 실질적으로 지배의 영속과 권위의 지속을 기원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는 봉건제가 제국주의에 의해 파행적으로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된다。

후자에 의한 굿은 초기의 소박한 마을굿으로부터 이조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공동 노동을 수행하기위한 두레굿의 형성까지 오랜세월 피억압 노동대중의 대동굿으로 전개되었다。(물론 소위 마을공동체의 형성시절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단순화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대동굿은 두가지 상호모순되는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즉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었고, 체제통합적이면서 갈등적이었으며 규범적이면서 반란적인 모순된 행위였다。그것은 아무리 공동체적인 마을의 굿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배자에 대한 풍자를 즐기는 굿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분의 변화를 폭발적으로 만끽하는 난장의 굿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배계급에 의해 일시적으로, 즉 굿하는 기간동안만 허용되는 해방의 시간이며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 단위의 피지배 대중이 아무리 일시적인 해방의 시간과 공간을 즐겼을지라도 그 이후로는 결국 끊임없이 계속되는 피지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지배 계급은 지배의 기본적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지배 대중의 굿을 일시적 시혜의 형태로 허용했던 것이다。

피지배계급만에 의한 공동체굿은 초기의 산만한 마을굿으로부터 이조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공동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두계급의 형성까지 오랜세월 피억압노동대중의 대동굿으로 전개되었다。

〈사진·장산도지방의 「씻김굿」 中에서〉

미륵신앙과 풍수도참신앙은 민중운동의 사상적 토대구성

싸움굿은 사회평등·정의를 실현해 사회적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

민중적 에너지의 부활이 이 時代 활동가들의 기본책무

4

그러나 동시에 대중은 이겨내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을 굿을 통해 삭히고 감내하면서도 계급 모순의 철폐와 토지소유의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즉 굿이야말로 지배계급에 의한 대중들의 조직적 수준과 혁세 사상의 현재화는 가장 중요하다。즉 이 두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서만 사회경제적 모순의 격화는 민중의 혁명운동을 촉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대중들의 조직적 수준은 대개 마을 단위 피지배 대중들의 굿적 결속력과 그 수위를 같이 한다。그것은 대동제의와 대동회의와 대동놀이를 모두 아우르는 대동굿이 활성화된 곳에서 높은 조직적 견고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혁세 사상의 현재화는 혁명적 사상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대중들의 심성 속에 자리잡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그 중에서도 가장핵심적인 것은 미륵사상과 풍수도참이라고 할 수있다。미륵사상은 「시간적」 해방 사상이다。즉 말법 시대가 끝나고 미륵불이 토솔천에서 지상으로 하생하는 날, 이 세상은 정토가 된다는 신앙으로 어느 예정된 시간에이세상은 해방된다는 것이다。풍수도참은 「공간적」 해방 사상이다。즉 나라의 운세가 기울고 세상이 불안해지는 것은 지덕(地德)이 쇠했기때문이므로 나라의 도읍을 옮겨야 한다거나, 아니면 국토의 어느곳엔가 있는 해방의 이상향으로 피난하자는 신앙구조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사실 미륵 용화세계나 해방된 복락의 이상향은 너무나 먼 곳에, 그리고 먼 훗날에나 존재할 유토피아라는 점이다。따라서 일상적인 억압과 고통이 극에 달할 경우 피지배대중은 유토피아라는 부정을 또 다시 부정하여 유토피아를 지금 이곳에 실현하려는 불꽃같은 반란의 전열을 갖추게 된다。

민중의 혁세운동사에서 이 미륵신앙과 풍수도참신앙은 씨줄과 날줄을 이루며 봉건농경제下 대중들의 혁세사상의 기초를 이룬다。그리고 그것은 이조 중엽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정감록>, <남조선신앙>, <후천개벽사상>등으로 발전하며 민중 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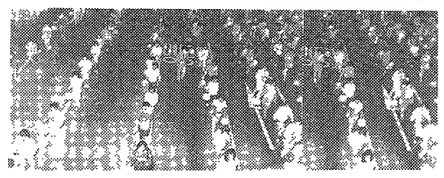
이러한 민중종교사상이 최고도로 성숙되어 19세기후반 반봉건반외세 민중운동의 세계사적 전형을 이룬것이 바로 동학굿이라고 할수있다。그러나 동학굿은 지배봉건세력과 외세에 의한 잔악한 탄압에 의해 철저하게 궤멸되었다。동시에 그것은 민중의 조직 수준의 저하를 강제하였으며 혁세 사상의 근본적인 변질을 초래하였다。그리고 그 여진은 일제와 그 이후 외세에의한 민족적 수난으로 이어진 것이다。하여, 정확한 계급적 이해에 의한 민중조직의 강화와 새로운 사회구성체에 대응하는 변혁사상의 건설에의해 동학굿의 좌절이래 그 민중적 에너지를 잃은 싸움굿을 부활시키는 것이 이 시대활동가들의 기본책무로 등장하게되는 것이다。

진 철 승
〈굿 연구가〉

□글 싣는 차례
1. 굿의 歷史的 변천
2. 굿의 미학과민중의 정서및 미의식
3. 민중종교 사상으로 본 굿
4. 민족굿의 과제와 전망

대중들의 조직적수준과 혁세사상의 現在化는 민중의 혁명운동을 촉발 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

대만유학생 王秀珍스님



東籬踏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접하기 위해 홀로 본교에편입하여 만 일년동안 한국전래불교연구에 몰두해온 대만인유학생 (불교·3) 依恩스님。

佛誕節을 앞두고 대만의 불교사상과 그내용을 조금이나마 알아보고 싶은 충동에 동악로席에 그를 초대했다。

유난히도 수줍움을 많이 타는 依恩스님은 지난해 3월 편입당시부터 매일 1시간정도씩 본교 기획과 安秉龍주임과 한국어공부를 해온 까닭에 지금은 웬만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다면서 쑥스럽게 웃는다。

지난해 입국당시 서울의 첫인상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오기전의 생각보다 서울이 대도시다운 모습을 갖추었다고 느꼈으나 도시에 나무들이 대만에 비해 적어 보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대만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沐佛節」이라 부르는데 무슨 뜻이냐고 묻자, 『이에대한 유래를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대만에서는 「九龍吐水」의 의식이 있는데 이와 연관이 있는것 같다』고 자기나름의 설명을 한다。

이 『九龍吐水의 의식은 「沐佛節」의 중요 의식의 하나인데 새로 정사를 짓고 그 한가운데 부처님을 모신다음 그 둘레에 9마리 용의 입으로 부터 물이 뿜어져 나오게하여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사찰에 따라서는 龍대신에 스님들과 신도들이돌아가며 물을 떠서 뿌리기도 한다』고 자세히 설명을 덧붙인다。

이런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부처님은 원래 高潔한존재라 목욕은 필요가 없지만, 이 의식을 통해 신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에 의미가 있다』고 답변。

대만의 신도와 한국의 신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

개 달라는 말을 건네자, 『한국에서 생활해 온지가 일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대만 신도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거의가 부처님(佛像)을 모시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며 『대만에서는 승려가 아닌 일반 신도들은 목에 염주를 걸고 다니지 않는데 이곳 한국에서는 신도들도 염주를 걸고 다니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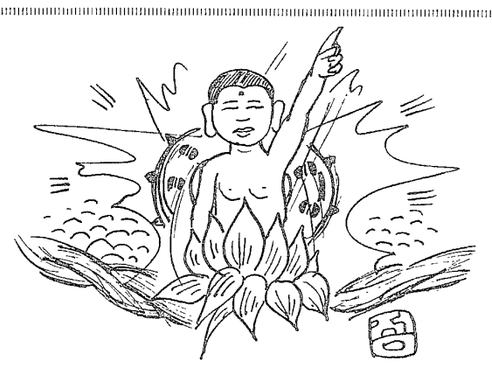
지금 거처하고 있는 圓通庵(서울 성북구소재)에서의 생활은 암자에 계신 비구니스님들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다。

모국을 떠나 학문을 탐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언어소통이 되지않는 것이 가장 큰 곤욕이었으나 이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국어실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수줍게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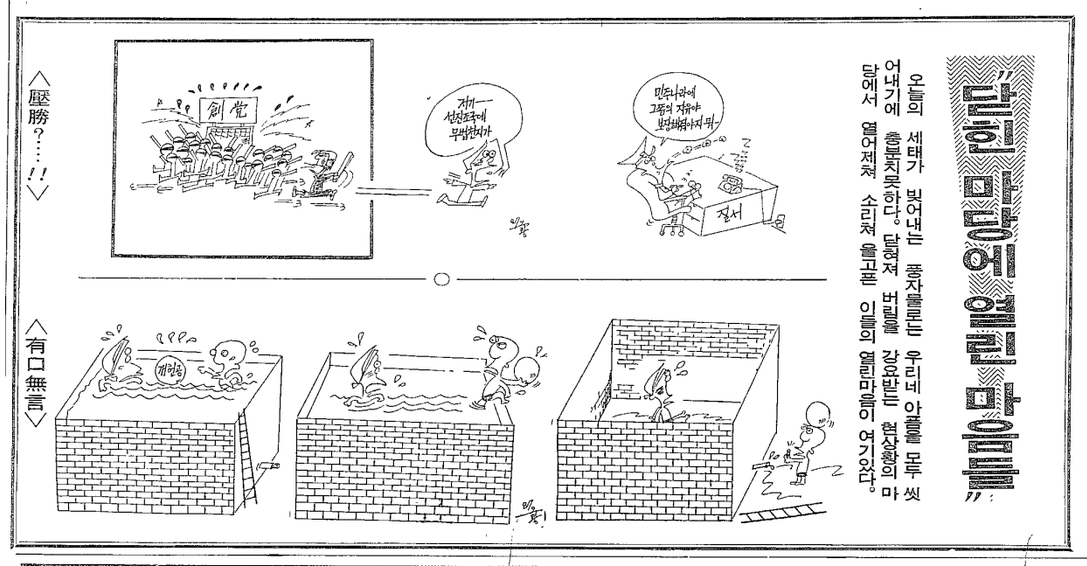
약속을 어기는 일이 전혀 없다는 주위의 평판에서 중국인의 기질을 엿볼수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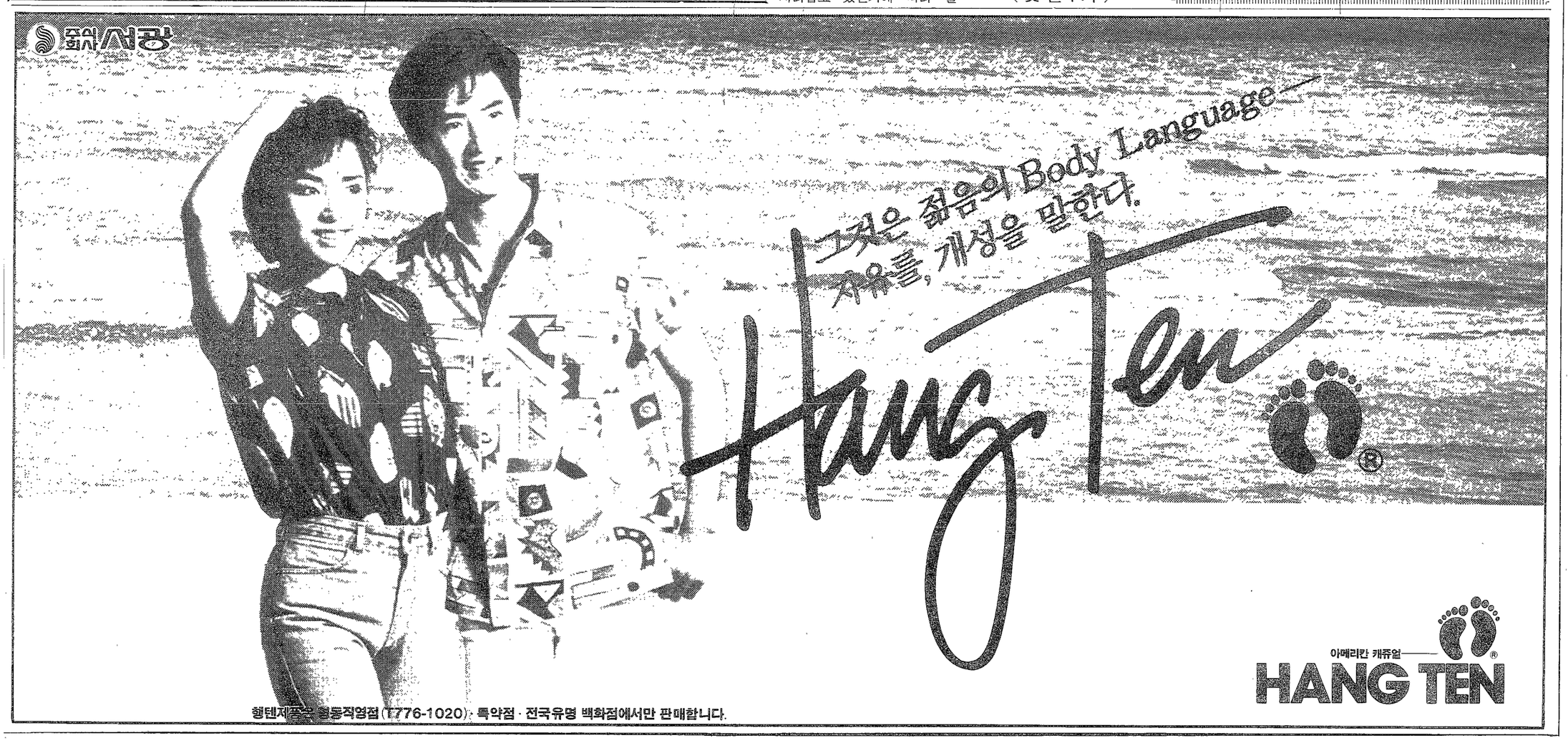
<노건환 記者>

東國漫評



◇「拈 華 微 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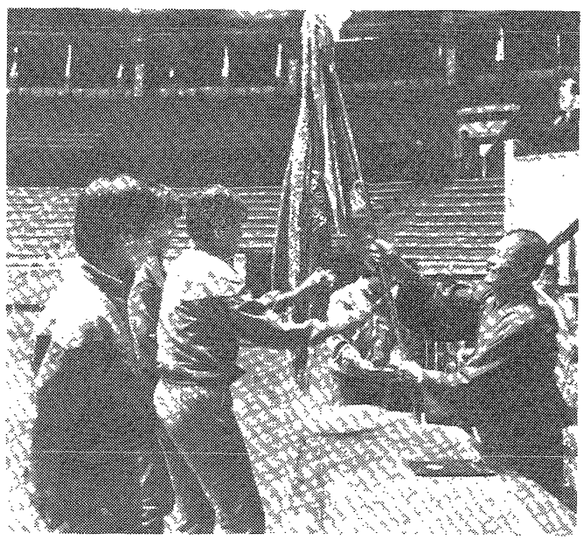




2천년대 主役으로서 힘찬 飛翔을

8일 중강당서 開校 81周年기념식 거행

"가계에 충주적 인재배출" 精神文化 주도해온 民族教育산실"



◇제13회 本校 총장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지난달 30일 9일간을 열전을 마치고 폐막되었다。(사진은 시상식 장면)

本校가 오는 8일로 개교 81주년을 맞는다。

董韓末 불교의 사회화를 통한 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明進학교를 시작으로 출발한 본교는 81년의 연륜을 쌓아오는 동안 명실상부한 민족사학으로서 이명의 정신문화를 주도해 왔으며 정치 문화 경제등 각계각층에 걸쳐 숱한 인재를 배출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국가발전에 크게이바지해왔다。

한편 본교개교81주년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날 기념식은 李鍾寂총장의 기념사, 吳仁甲재단이사장의 고사, 鄭在哲동창회장의 축사및 학교연혁 보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자매교인 日本大正大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30년 근무상
▲金鍾遠 (경제학과교수)
▲李相植 (일학과교수)

◇20년근속상
▲김문일 (홍부처)

◇10년근속상
▲吳宇根 (불교학과교수) ▲李淳咏 (법학과교수) ▲徐載根 (경제학과교수) ▲李珣 (통계학과교수) ▲金炳煥 (미술학과교수) ▲李永植 (전산과교수) ▲金鍾奎 (교육학과교수) ▲申炫燁 (〃) ▲권용법 (부속한밝병원 관리과장) ▲정현수 (교육방송국간사) ▲이용운 (실험등장) ▲서영배 (홍부처) ▲손봉호 (홍부처)

行大院 개원20周 13일 롯데서 기념행사

행정대학원 (원장·金一鴻)는 오는 13일 오후6시 롯데크리스탈 볼룸에서 갖는다。

대전고·인성여고 우승

총장기 농구 지난달 30일 성황리 폐막

제13회 본교 총장기쟁탈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에서 남고부의 대전고와 여고부의 인천인성여고가 각각 팀 창단이래 처음으로 전국규모대회에서 패권을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지난달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본교 주간행사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 개막식을 갖고 오후 3시 보광사상 연무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주최로 「붓의 사슬을 끊고 해방에로」란 연제아래 知訣스님 (문빈정사 주지) 초청강연 「불교의 근본사상과 민중」이란 주제의 기념심포지움이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렸다。

이어 4일에는 오후 2시 수계法會가 불상앞에서, 오후5시 불교가요제및 개사곡 경연대회가 중강당에서 각각 열렸다。

또한 불탄일인 5일에는 오후5시 여의도광장에서 초파일법요식을 가진후 오후 7시부터는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의 연등행렬이 있게된다。

한편, 6일에는 오후1시 불상앞에서 「동국81주년 대토론회」및 백상숙비조합 결성식이 있답아 열리며, 오후4시에는 「정치 후진사회에서의 민족주의 이해」란 연제의 강연회가 중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佛誕의 진정한 의미 되새겨

5일 여의도서 法要式및 제등행렬

佛紀 2천5백31주년을맞아 불교문화연구원주최 불교학술세미나, 불교도연합주최의 「불교도주간」행사등을 탄기념행사가 교내외 일원에서 활발히 열리고있다。

佛敎學術세미나

本校 佛敎文化硏究院(원장=李鍾昌교수) 주최 불교학술세미나가 지난2일 오전10시 국내외 불교학자및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하여 金煐泰 (불교학과)교수는 佛敎式의 歷史的 思想性」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佛敎儀式은 바른법 (佛法)을 세상을 밝게비칠수 있도록 하는데 불가결한 방편으로 서의 의식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라 강조했으며 徐宗梵 (승가대) 교수는 「현행 佛敎儀式의 問題點」에서 禮敬獻供의식, 法會奉行의식등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敎理, 思想과 함께 의식, 또교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도주간 행사

「그믐 벗들이여!」 평등·화합의 꼬임체를 향한 연[란 주제 아래 本校 불교도연합회 주최로 열린 10시 관계자 1백여명이 운데 교수 세미나실에서 열었다。〈12면 관련기사〉

「佛敎儀式의 諸問題와 새로운 방향모색」이란 주제 아래열린 이날세미나 에서 金煐泰 (불교학과)교수는 佛敎式의 歷史的 思想性」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佛敎儀式은 바른법 (佛法)을 세상을 밝게비칠수 있도록 하는데 불가결한 방편으로 서의 의식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라 강조했으며 徐宗梵 (승가대) 교수는 「현행 佛敎儀式의 問題點」에서 禮敬獻供의식, 法會奉行의식등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敎理, 思想과 함께 의식, 또교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메라 댓상

우리가 목말라 할때 당신들은 선진조국을 들먹거렸읍니다。우리가 굶주릴때 당신들은 그럴리가 없다며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 법이라면서 지금은 이르니 때를 기다리라 했읍니다。기다림의 슬픔이·노여움이·서러움이·분통이·限이。그 기다림의 결과가 기껏…

<글=김영석記者·사진=지희현記者>

慶州 총선 체제 돌입

總學 정·부회장에 3選 일후보

결후캠퍼스 제4대 총학생회 일후보자 들특이 지난2일 오후1시 마각,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제4대 총학생회장 각단대, 여총을 구성하기위해오는 20·21일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총선거에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3팀, 총여학생 2명, 인문과학대 1명, 자연과학대2명, 법경대 3명(한의대는 지난달 23일 선출)이 일후보등록을 마쳤다。

일후보자 평단은 다음과 같다。

◇총학 정·부회장
▲강진수 (법학3)·방일성 (경제3)·김봉수 (국사3) ▲이덕수 (경영3)·김진영 (경영야3)·장기현 (국문3)

◇총여학생회
▲김은경 (국문3) ▲조영미 (가교3)

萬海詩碑 건립委 吳國根교수

위원장 年內發귀키로

「萬海詩碑건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吳國根교수 (문과대학장)을 임명했다。

개교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건립을 예정이었던 이 만해시비는 18대 총학이 「학생들의 모금으로 동을 통해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지못해 계속 미루어졌었다。

한편, 시비건립장소는 교문앞 화단으로 잠정 확정했으며 2미터 크기의 자연석을 상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吳國根교수

중앙도서관 출입시 학생증검사

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도서관 출입시 학생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지난달 30일 학처장회의에서 「萬海詩碑건립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를 학생들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同門言論人 초청

李총장, 간담회 주재

「同門言論人 초청간담회」가 지난 1일 오후 7시, 앰버서더 호텔 (2층홍복)에서 李鍾寂총장은 본교 출신 언론인들을 비롯한 처·실장 및 각 신문·방송·통신사의 「同門」 언론인등 5·6공씩 간담회하고 있다。

慶州 총선 체제 돌입

總學 정·부회장에 3選 일후보

결후캠퍼스 제4대 총학생회 일후보자 들특이 지난2일 오후1시 마각,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제4대 총학생회장 각단대, 여총을 구성하기위해오는 20·21일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총선거에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3팀, 총여학생 2명, 인문과학대 1명, 자연과학대2명, 법경대 3명(한의대는 지난달 23일 선출)이 일후보등록을 마쳤다。

일후보자 평단은 다음과 같다。

◇총학 정·부회장
▲강진수 (법학3)·방일성 (경제3)·김봉수 (국사3) ▲이덕수 (경영3)·김진영 (경영야3)·장기현 (국문3)

◇총여학생회
▲김은경 (국문3) ▲조영미 (가교3)

東國祝典 준비작업 활발

축준위 구체적인 프로그램 확정

東國祝典을 10일 앞두고 준비작업이 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와관련, 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강상원총학생회장)는 지난달3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축전의 주제를 「신새벽을 몰고오는 동이의 함성으로」라고 정하고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확정했는데 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일=전야제
▲14일=공연, 종교제, 동아의밤
▲15일=아리랑 공연, 씨름
▲16일=모의 대통령 선거, 상사증재, 차전놀이, 벽상연, 폐막제, 캠프파이어

조경과 수업거부

인원감축등 요구

慶州캠퍼스 조경학과생2백37명은 지난달28일부터 29일까지 「인원감축」「교수확보」「기자재확충」등 4개요구사항을 내걸고 수업거부 농성을 벌였다。

조경학과생들은 지난달28일 오후2시 도서관4층실에 계실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실습실확충, 인원감축등 4개항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수업 거부와함께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것을 결의한뒤 곧 바로 농성에 돌입했는데 지난30일 오후 2시30분 자연과학대 잔디광장에서 학과교과 및 두차례의 면담을 통해 기자재확충, 교수확보, 인원감축등의 해결을 약속 받고 오후6시경 자진해산했다。

제헌의회 소집촉구

노동절기념식등 가져

제헌의회 소집일인 5일에는 노동절 기념과 전방입소 제헌의회 소집철폐 등을 위해 학생회 정부회장단 및 각 단대 학생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本校 제헌의회 소집투쟁 위원회」와 「전방입소거부실천대회」가 지난달30일오후 12시30분 도서관앞에서 학생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本校 제헌의회 소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오후 3시 보광사상 연무회 주최로 「붓의 사슬을 끊고 해방에로」란 연제아래 知訣스님 (문빈정사 주지) 초청강연 「불교의 근본사상과 민중」이란 주제의 기념심포지움이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렸다。

이어 4일에는 오후 2시 수계法會가 불상앞에서, 오후5시 불교가요제및 개사곡 경연대회가 중강당에서 각각 열렸다。

또한 불탄일인 5일에는 오후5시 여의도광장에서 초파일법요식을 가진후 오후 7시부터는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의 연등행렬이 있게된다。

한편, 6일에는 오후1시 불상앞에서 「동국81주년 대토론회」및 백상숙비조합 결성식이 있답아 열리며, 오후4시에는 「정치 후진사회에서의 민족주의 이해」란 연제의 강연회가 중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국총서」 年內發刊키로

출판부 교수연구도서 등도

이번 행사는 1부에 서 별강연회를 가지며 2부순서에는 20년근속 총장공수에 대한 꽃모패수여등의 축하연을 갖게된다。

「동국총서」 年內發刊키로

출판부 교수연구도서 등도

本校출판부에서는 「東國叢書」, 「東國學術新書」, 「敎授硏究圖書」등 각종도서를 발간하여 학술신서는 지난해9월 「동국총서간행위원회」로부터인준받아 학술신서는 1부에 서 별강연회를 가지며 2부순서에는 20년근속 총장공수에 대한 꽃모패수여등의 축하연을 갖게된다。

◇개인상
▲최우수신우상=박재형 (대전) 정은순 (인성) ▲우수신우상=박수현 (대전여상) ▲명지=이강숙 (대전여상) ▲감명=김정혜 (송원여상) ▲장려=김정혜 (송원여상) 최광진영 (송원여상) 최명아 (숙명) 김경미 (송원여상)

慶州 학회연합회장 사창동君 선출

경주캠퍼스 신입학회연합회장에 사창동 (법학·3)군이 선출됐다。

지난달 23일 학연총회에서 회장에 피선된 사군은 당선 소감을통해 「학내제반 문제해결은 실천적 대응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밝히고 학교와 대화를통해 모든일을 학생원에서 해나가자고 결의를 표명했다。

노동절기념식등 가져

제헌의회 소집촉구

제13회 본교 총장기쟁탈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에서 남고부의 대전고와 여고부의 인천인성여고가 각각 팀 창단이래 처음으로 전국규모대회에서 패권을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지난달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본교 주간행사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 개막식을 갖고 오후 3시 보광사상 연무회 주최로 「붓의 사슬을 끊고 해방에로」란 연제아래 知訣스님 (문빈정사 주지) 초청강연 「불교의 근본사상과 민중」이란 주제의 기념심포지움이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렸다。

이어 4일에는 오후 2시 수계法會가 불상앞에서, 오후5시 불교가요제및 개사곡 경연대회가 중강당에서 각각 열렸다。

또한 불탄일인 5일에는 오후5시 여의도광장에서 초파일법요식을 가진후 오후 7시부터는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의 연등행렬이 있게된다。

한편, 6일에는 오후1시 불상앞에서 「동국81주년 대토론회」및 백상숙비조합 결성식이 있답아 열리며, 오후4시에는 「정치 후진사회에서의 민족주의 이해」란 연제의 강연회가 중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전무대

합법틀 짧고 넘어가야 할일

○…오는 8일로 東國이 開校 8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董韓末 국운이 기울어져 敎育을 통한 구국의 기치아래 거대한 첫불을 내디딘 이래 日帝 36년, 6·25, 4·19, 5·16, 유신체제, 5·17등 숱한 어둠의 시대를 헤쳐오면서도 이땅의 정신문화 창달을 주도하는 민족 私學으로서, 불교이념의 社會化에 앞장서온 진리의 터전으로서 不動의 위치를 지켜온 東國大學校。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당초의 인상을 풍긴다는 부정할수없는 사실도 1세기를 앞둔 오늘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일。

1만5천 동국학우여 뜨러분!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있는 7만同門 여러분! 늘 응원 정진하는 東國人이 됩시다。

「民族私學 東國」 여든 한돌… 더욱 정진하길

조그마한 무관심때문에

○…학교측의 교내시설에 대한 조그마한 무관심이 많은 學兄들의 불평을 사고 있어。

그중에서도 학생회관에서 다함께 모여 학우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향하는 33개의 계단은 절반이상이 「풍상에 가다듬은 엄센 팔다리(?)」에 마멸되고 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스파수군은 『학교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단의 하나인 만큼 하루빨리 보수공사를 해야할것』이라며 공사를 할경우 각도도 좀 낮추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

아무리P·R시대라지만

○…대중사회에서 P·R이 강조되고 있다지만 학내에서 광고부 붙이기 극성을 부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없지만 그런데 붙이지 말아야 할곳에 붙여있는 게시물이 너무 많은게 문제。특히 각 건물벽에 붙여있는 벽보는 「공명선거제」의 발달로 인하여 관계부서에서 일부러 인원을 동원해서 제거작업을 벌여도 오래도록 「상흔」이 남아 주위 미관마저도 해친다는 것。

이에대해 H과 O군은 『아무리 대학문화가 게시판 문화라곤 하지만 이것때문에 캠퍼스 전체가 지저분한 인상을 주어서야 되겠느냐』며 목자라는 게시판을 탓하기도。

「차량통제구역」을 정해주세요

○…경주캠퍼스가 아직 9시경만 되면 「교통지옥(?)」을 방불케해 많은 學兄들이 불만을 토로。

사연인즉, 오전1교시 강의시간에 맞추기위해 소위 「학구파」 학생들이 택시를 동원해 각건물입구까지 들어오곤해 캠퍼스가 아닌 택시주차장으로 변모 (?)등교시간의 많은 學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것。

이에대해 本회전투대구 한마디, 『학구열에 불탄 (?) 학생들의사기를 높여주는것도 좋지만 많은 학생들의 임장도 생각하셔서 교내에 「차량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건 어떨까요』

보리수

부처님의 오심

4월 初八日。佛子들도시는 더없이 성스럽고 묘과 마음으로 기쁠에 차 奉祝해마지 않는다。그러나 부처님 오신 이날은 비단 불교인들만이 의미를 되기에 앞서 참다운 복과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버릴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고난의 세계에 그 몸을 나투신다」

그 본의 오심은 오직 중생을 향한 大慈悲心 때문이다。부처님은 어떤 영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권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요。오직 중생의 괴로움을 건지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신것이다。괴로움에 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오심은 큰 빛이요 정녕 축복이 아닐 수없다。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새삼 이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禮敬하고 부명을 받아들여 등불을 켜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저마다 발원한다。부처님 오신날을 자들로서는 당연한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버릴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세계에 몸을 나투신 부처님」이심을 안다면 4월 初八日 하루만으로 부처님 오신날은 한정시켜도 경건하게 부처님을 禮敬하고 등불을 켜듯 無明을 밝히고 가르침대로 살기를 매일 매일 부처님 오신날처럼 해야할 일이다。

金 燁 泰

제23회 學術賞 원고모집

本校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 매해 알찬 수확을 거둬온 本 社學術賞이 올해로 25회의 연륜을 쌓게 되었읍니다。傳統과 權威에 빛나는 本 學術賞에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募集分野
▲人文科學賞 ▲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應募要領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枚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 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本校 재학생에 限함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당선작발표와 함께 공고
▲시 상=상장및 상금(분야별 당선작 20만원, 가작 15만원)
▲작품제출기간=10월31일까지 本社에서 접수
▲당선작발표=11월10일 本紙 紙上(예정)

1987년5월 일

東大新聞社

詩와 散文 맨발로 이땅을 디디고

宋 赫 全集 [2]

2년전 우리결을 떠났던 詩人 宋赫(本名=在甲)교수의 작품모음집!

東國大學校 出版部
<국판 254面, 3천5백원>

전국 대학생 대상 第2回 東大文學賞 원고모집

本社에서는 東國의 文學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 來日의 韓國文壇을 이끌어갈 力量있는 文才발굴을 위해 全國 大學生 대상「제2회 東大文學賞」원고를 다음과같이 公募하오니 文學에 뜻을 둔 大學人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詩 : 5편이상
▲小 說 : 60매내외(2백자원고지)
▲文學評論 : 60매내외(2백자원고지)

◇응모요령
▲응모자격 : 전국 4년제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작품제출기간 : 1987년9월16일限
▲시 상 : 상장및 상금
(當選作 1편=30만원, 佳作 3편=各20만원)
▲심사위원 : 本社에서 위촉하며 當選作 발표와 함께 公告
▲당선작발표 : 1987년9월29일字 本紙지상(예정)
▲작품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작품겉봉에 「東大文學賞」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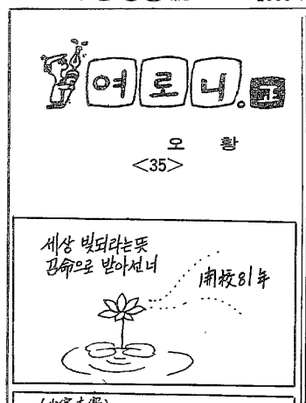
一九八七年 五月 日

東大新聞社

여로니

오 황

<35>



맨발로 이 땅을 디디고

宋赫 著

새책안내

故 宋赫(본교 국문과) 교수의 유고시집인 本書에는 「善提의 뿔」 「解土」 「겨울나무」 「맨발로 이 땅을 디디고」 등의 시편들과 유고시 및 산문을 정리하여 펴 냈으며 수록된 수편의 시와 산문을 통해서 宋교수의 높은 뜻과 인자한 인품을 대면케 된다. <東大출판부刊·252면·3천5백원>

의회정치의 理論과實際

최요환 著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예의분석, 비판은 우리나라 유일의 권위서인 이책은 최요환(본교 행정학과) 교수가 저술하였으며 議會政治의 존재가치로부터 의회정치의 원리, 위기, 기구, 전제조건과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확립의 길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박영사刊·面7천5백원>

분노의 메아리

朴婉緖外 著

「女性東亞」장편소설 당선작가 10人의 新作小說集인 이책에는 朴婉緖의 「저문날의 揷話」, 盧淳子의 「분노의 메아리」, 柳德姬의 「달빛사이로」 등 여류작가 10人의 11작품이 실려있는데 저마다 다른 글들을 통해 다양성과 신선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전예원刊·376面·3천8백원>

맞아요, 우리아빠가 옳은 일이면 데모해도 된대요

敎生 실습기

기대했던 첫수업참관시간, 『여러분, 가장 진실되지 못한 곳이 어디죠?』 『북한이요!』라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일제히 답변하고 있었다

4월6일—교생실습 첫날이다。애국조회를 마친 후 정신교육연수와 첫 수업 참관이 있었다。첫 수업참관에서 나의 기대는여지없이 무너졌다。도덕수업 시간 진정한 생활윤리를 배우고 있었는데 수업진행중 『여러분 가장 진실되지 못한 곳이 어디죠?』 『북한이요』생각할 여지가 없었다。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 모두 일제히 답변한 것이었다。어느 선택이나 생각 논리가 필요없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고교, 대학에가서 느끼게 될 가치관의 혼돈을 생각하니 이러한 교육현실과 내 위치가 갑자기 우울해졌다。나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맑은 눈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슨 틀에 박힌 얘기만을 해야 할까?

첫째주—학급경영, 생활지도, 학생지도, 교무행정과 실제에 대해 계속되는 교육과 수업참관, 학교행정에 관한 세부적인 교육을 받으며 끝냈다。

4월15일—매일매일 이어지는 수업참관에서 벗어나 오늘 첫 수업을 진행했다。출석점검, 진도확인에 이어 준비한 괘도등을 이용,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보다 쉽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중1의 사회책이 너무 어렵게 편성되어있는 것같았다。학생들에게 이론의단순한 설명이 아닌 경험에 의한 내용위주로 강의하려 했는데 바쁘게 떠들다보니 교과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만을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반복했던것 같다。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대로 하지못한것도 무척이나 아쉬웠다。

둘째주—첫수업으로 인해 바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도 상당히 친해졌다。아침자습 시간에 사회뿐만 아닌 수학·영어·물상등전과목을 지도하자 아이들은 너무나 위대하게(?) 보는 듯해서 약간은 이상해지기도 했다。아침자습장을 검사하며 간단한 말을써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별일 아닌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는 학생들의 태도는 배울만 했다。또 면담중엔 이런일도 있었다。교생은 아이들 소풍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선생님, 소풍에 함께 가시는거죠?』 『아니, 못간단다』 『어머, 왜요? 못가게 해요?』

『그래』 그제서야 아이들이 『우리 모두 교무실에 가서 데모해야 하지 않니?』 『그래, 맞아, 우리 아빠가 옳은 일이면 데모를 해도 된대』 『그래, 그런데 우리 나라는 데모가 너무 심해서 탈이야』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될텐데…』 이런 말들을 그들끼리 주고받는 것을 들으며 너무나 우습기도 했지만 너무나 그들의 태도가 진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그대로 들어주었다。

4월22일—1·2학년 월례고사와 3학년의 모의고사가 있었다。시험감독을 하며, 그나름대로 진지한 그들의 태도가 평소와는 너무나 달라 웃음이 나왔다。이아이들도 성적의 노예가 되어 한점 때문에 울고 웃게될까?

성적은 학생의 모든면을 파악하는 것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세째주—시험과 내주에 있을합창대회준비로 바쁘게 된 주였다。시끄럽고 말안듣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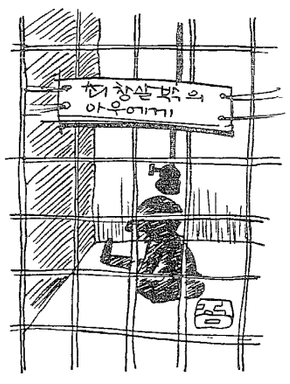
4월29일—합창대회가 있었다。조용히 노래를 부르는것이 대견스러웠다。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그 자체와 어느 일이 끝난후 열심히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수있는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었으나 내자신부터도 웬지 아쉽다는 느낌만은 남는 날이었다。

5월2일—교생실습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가 흘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미리 준비한 엽서를 나누어주자 아이들 모두가 울어버렸다。울지 않기로 했는데…『선생님, 감사합니다』하고는 품에 안겨 우는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교생실습은 끝났지만 교육은 나에게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다시 한번 그 눈망울들 앞에서 수업과 모든 말들을 하고 싶다。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실습이었지만 아직도 허탈한 것은 왜일까?

윤 미 순

<사범대 지교과>

기다려다오. 민중의아픔을함께하는 떳떳한 형으로서 네앞에 설때까지



아우에게。

몇달만에 잡아보는 펜이 웬지 투박하고 어색함을 느끼면서 네가 땀흘려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도 멀어진듯한 착각에 실소 하고만다 어쩌면 감옥 이라는곳에서의 극단적 자유의 박탈과 사회체제라는 쇠창살 없는 자유의 박탈은 어떤 차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나 우리들이 이 감옥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달녀며 저쪽을 천국 이라고 부를 것이다。그러나 달녀며 저쪽은 결코 천국이 아닌 사실을 생각할 때, 이곳의 공간에 더 많은 자유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단지 숨겨진 사회속에서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일만평가량의 땅위에 그것도 2백평짜리 하나의 사동속에 그 속에서도 종로 어느 길거리 구석에 의지한 포장마차만한 사각의 벽속으로 내던져진것이 아닐까?

이곳에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궂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제제받지 않는 사념의 평화일 것이다。그래선지 나는 상념할 수 있는 밤을 좋아하는 것이고 억압받지 않는 밤을 위해 지새울 수 있는 것이리라, 7시30분。취침나팔 소리와 함께 나는 작은 행복에 젖어든다。

하루종일 변함없이 반복되어 사육되어지는 생활속에서 밤을 알리는 나팔소리는 강제된 공간이나마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모기장 같은 쇠그물이 달린 쇠창살밖으로 내 키에 3배는 족히 됨직한 높은 시멘트담이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져스스로 내 육신을 부수고 싶을에 필고있다。그러나 아득한 어둠속 저멀리에서 아련히 빛나는 십자가의 빨간 불빛을 바라보며 수천년전 십자가에 못박혔던일을 생각한다。

내 비록 교회를 찾지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을지언정 인간으로서 인간해방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고귀한 뜻을 새기고자 한다。또한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내모습을 투영해 본다。너의 곁을 떠난지가 벌써 백일이 넘어 갔음에도 어쩔수 없는 자로 방그림자에 멍그라니 묶여있다。

그러나 1·25평의 작은방 속에서 홀로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고독과 알수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경질적으로 눈을 감아 도피하고 싶었고, 나의 목 언저리는 늘 말라있어 갈갑하였고 사탈에 대한 그리움에 쇠창살밖으로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있었다。그런 생활이 열흘이지 날때였다。다른 방에있는 학우와 연락이 될수 있었을때, 나는 너무도 기뻤다。나는 그로부터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수있는 뿌리깊은 나뭇가지를 발견했던 것이다。무기력한 고독감을 뚫어버리고 좌절과 한편의 거죽을 찢어버리기위해 『오늘도 내마음에 작고 이쁜 칼을 갈아 소중히 간직했다。나의 번뇌 끊고 적들을 치리라』고 한 어느 선배의 외침을 되새기며 노래할수있는 여유도 생기더구나。이제 나는 규칙적이며 내용성있는 생활을 가질수있는 힘을 배울수가있었다。닫힌 이곳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허송세월로 보낼수는 없는것이다。적나라한 문제제기와 고민, 그것의 극복속에 실천할수있는 굳건한 신념을 쌓아나가야한다。

아우야! 밀어다오 그리고 기다려다오。비록 책의 제약이 심해 많은 공부를 할수 없지만 깊은 자아성찰과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여 민족과 민중의 아픔을 함께하는 믿음직한 형으로서 네앞에 서겠다。빠른 시일내에 소주잔 부딪쳐잡고 웃도록 하고 그동안 부모님 잘모실껴 드리길 바란다。용기 넣을수 있는 편지 한장 부탁한다。

사각의 그늘속에서 못난 형이。

한 유 성

<문과대 철학과>

格文法이란 무엇인가

——南龍祐외 三人共譯

書評

南龍祐외 三人 共譯한 촬즈·필모어원작의 「格文法이란 무엇인가」는 종래의 理論書들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정연하게 격문법이론의 어제와 오늘을 다루고 있다。

이책의 제목은 역자들이 만든 것이고 내용으로 본다면 촬스·필모어의 「格文法(Cose Grammar)理論 硏究」라고 부르는 편이 理論中心的인 성격을 잘 나타낼 것으로 본다。

수록된 논문들은 1968년도에 당시의 文法理論에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해준 格文法의 윤곽을 제시해준 「格의 경우(The Casefor Case)」를 필두로 하여 1977년도에 발표한 「格文法 再論」(The Casefor Case Reopened)」에 이르기 까지 총 八편의 길고 짧은 논문들이 망라되어 있다。

물론 이책이 필모어의 전집적인 논문의 묶음으로 취급될수는 없지만 그의 주요한 이론적 주장은 타당성있게 제시되어있는 단행본이 역자들의 손으로 펴내진 것이라고 할수가 있다。

종래의 표층구조적인 문법범주인 주어니 목적어니 하는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格」이라는 문법의 중요한 범주를 설정, 적용하므로서 종래의많은 모호성과 비논리성의문제점들을 해결해준 것이 격문법의 두드러진 공헌이라고 말할수가 있다。따라서 격문법은 통사론의 영역에국한되어 있기 마련이며 거시문법의 일부인 음운론내지는 의미론과 활용론등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 할 일이다。

20세기후반을 지배하다시피한 변형생성 이론자체와 아울러 그 부산물이라고 할수있는 格文法의 이해는 人間의 言語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책은 역자들에의한 논문의 선정이 적절타당하고 또한 譯文의 質이 탁월함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본다。더우기 간혹 완작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에 대한 한국어의 대등용어를 채택, 또는 고안함에 있어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흔적이 보인다。

책의 순서대로 읽어간다면 어느정도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도라면 특별한 애로가 없이 독파할수가 있을 것이다。대학에서 어문학과에 재학중인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정말로 기다렸던 책이 드디어 나왔다는 감을 주게될 것이다。각급학교의 어문계 교사들에게도 권할만한 책이라고 믿어 마지 않으며, 특히 국문과와 영문과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재 또는 부교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믿고 서슴없이 추천하고자 한다。

宋堯仁

<문과대교수·영어학>

文化短信

동국문학회 시화전詩모집

오는 10일까지 동국문학회실에서

東國文學會에서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동국축전기간中에 전시될 시화전의 詩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젊은베르테르의 슬픔」

오는10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서

오페라 상설무대는 괴테作, 마스네 작곡의 오페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문예회관대극장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오후3시반, 7시반。

「다이얼M을 돌려라」공연

오는 31일까지 샘터 파랑새극장에서

민중극단에서는 프로드릭·노드作 박계배연출의 「다이얼 M을 돌려라」 공연을 오는 31일까지 샘터 파랑새극장 무대에 올린다。공연시간은 하오 4시반, 7시반 하루2회공연。

메아리

▲『배운게농사일뿐이고 또 홀어머니를 모셔야하니농촌을 떠날 수 없다』던 한 청년。결국 청년은 農村을 떠나지 못했고 그 곳에 뼈를 묻고 말았다。꽃다운 나이라기엔 좀 늦은감이 있는 노총각 신세로。『농사일은 쉽다』는 여인네의 외면속에서도 끝내 「농민의 아내」를 찾기로 고집했던 그에게 남은것은 오로지 끝없는 좌절과 배신감 뿐。소처럼 일만 했다면 그가 눈물감으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였을까。▲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2년전 강원도 산골 총각들이 「농민도 사람이다。장가 좀 가자」라는 현수막을 내건후부터 문제는 표면화 되기 시작했으나 숱한 총각의 가슴만 울린채 이 難題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하기사 시골에 살면 일이 많고, 소득은 적고 도시생활에서의 편익도 누릴 수 없으니 어느 처녀가 농촌으로 시집가려 할것인가。어찌보면 어느 농촌총각의 죽음은 바로 농촌 그 자체의 죽음일지도 모른다。都農간의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지난달부터 「민주개헌」과 「독재타도」를 표방하며 시작된 신부들의 단식기도는 지칠줄 모르며 오늘도 그 인원만 늘어가고 있다。서명교수도 2일현재 모두 6개대학 2백53명으로 밝혀져 점점 지지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4·13담화가 국민의 말할권리와 정부선택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전제한 신부 설교문의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삼는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선택권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치료제인것처럼 생각된다。죽어가는 것은 비단 농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각목을 든 정치가 죽어가고 의학도 피하는 경제가 죽어가며 고문앞에 무력한 민중의지가 죽어가고 있기에 하는말이다。이러다가 언제 어느때 우리의 民主主義가 자살을 시도할는지도 모를 일이다。▲프로이드에 따르면 자살은 일종의 他殺로 여겨진다。즉, 자살이란 것은 스스로를 타살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타살되는 두가지 형태일 것이다。우리의 자유가, 권리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들자신에 의해 타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민주주의의 타살은 곧 우리의 자살이기 때문이다。

<勝>

自殺白書

코오롱은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한 기업의 의지를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댓가의 보람을 실현하는 사풍운동으로 실천하고 있읍니다.

코오롱은 보람찬 일터를 가꾸기 위한 기업의 의지로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댓가의 보람으로 실천되는 사풍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참여의 보람이란 창의적이고 열의를 지닌 인재가 그들의 가능성과 이상을 코오롱의 일터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또는 연구분야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코오롱 구석 구석의 각 분야에서 코오롱의 인재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코오롱의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재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코오롱은 참여의 보람과 더불어 젊음의 도전과 창의성이 댓가의 보람, 성취의 보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사 조 정 호

참여의 보람—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은 그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마당이 폭넓게 펼쳐진 기업입니다。
코오롱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꿈과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는 긍지와 보람의 일터입니다。

어느날, 신입사원인 나에게 우리회사가 앞으로 펼칠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라는 뜻밖의 업무가 주어졌읍니다.
입사한지 6개월… 수습사원이라는 딱지를 막 벗어버린 햇병아리 신입사원에 불과한 나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였읍니다. 더군다나 10년이나 대학선배인 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까닭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읍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신입사원을 과감하게 기용한 회사측의 배려는 일에 대한 끝없는 의욕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지금, 성공적인 업무의 완수못지 않게 그당시 선배와 같이 참여했던 소중한 경험이 어떤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감을 갖게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읍니다.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참여의 보람이 있는 직장—
사람을 뽑아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람의 일터—바로 나의 일터 코오롱은 인재의 소중함을 막연함이 아닌 행동으로 제시해 주는 보람의 장(場)인 것입니다.

사원 김 대 화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코오롱